

## 46조 반도체 투자 '최태원 플랜' 시동

〈SK그룹 회장〉

SK하이닉스가 31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장 2개를 추가로 건설한다. 이로써 SK그룹은 SK하이닉스 이전 'M14'를 포함해 2014년부터 10년간 반도체 사업에 총 46조원을 투자한다는 이른바 '최태원 플랜'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최태원(사진) SK 회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SK하이닉스 경기도 이전 본사에서 열린 'M14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최 회장은 이날 반도체 사업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장비 및 시설 투자에 15조원이 투입되는 M14 외에 이전과 중복 투자에 추가로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이전에 부지 조성을 시작하고, 청주에서는 올해부터 새로운 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이번에 준공된

SK하이닉스, 300mm 웨이퍼 전용 생산 'M14' 오늘 준공  
55조 생산유발·21만 고용 효과... 박근혜 대통령 등 참석



M14에서 발생될 매출이 국민경제에 55조원의 생산유발과 21만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M14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에는 5조1000억원의 생산유발과 5만9000명의 고용창출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전, 청주 반도체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M14의

3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M14는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전 본사에서 구축된 300mm 전용 반도체 공장으로서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5만3000㎡(약 1만6000평, 길이 333m, 폭 160m, 높이 77m)의 규모로 조성됐다. 단일 건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총 6만6000㎡(2만평, 한층 당 3만3000㎡)의 2층 구조 클린룸에서는 최대 월 20만장 규모의 300mm 웨이퍼 생산이 가능하다. '내일을 여는 위대한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유승우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조병돈 인천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김장근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협력사 임직원, 지역대표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장효진 기자 js62@

### 남북 고위급, 43시간 '마라톤협상'... 무력충돌 막았다



우리측 대표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대표인 김양건 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오른쪽부터)이 25일 오전 판문점에서 '무박4일'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 남북 고위급당자 접촉 6개 합의내용

-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군인 등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 북측은 동시에 중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중국발 쇼크'에 정부정책 줄줄이 제동

위안화 이어 증시폭락 '설상가상'... 수출·내수·관광 활성화 대책 '발목'

증시 폭락에 따른 중국발 2차 쇼크에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이 줄줄이 발목을 잡혔다. 이와 관련, 24일 중국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는 8.5%로 폭락하는 장세를 연출했다. 홍콩 항셱지수는 장중 5%대, 대만 가관지수는 7%대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잠정치가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47.1을 기록한데다 최근 중국 통화당국이 단행한 사흘간의 위안화 절하가 중

국경제의 불안감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7% 하락한 1829.81로, 코스닥지수는 2.19% 내린 613.33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4.0원 오른 1199.0원으로 마감해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중국경기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경기부양책 또한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달 초 정부는 메르스로 위축된 국

내 관광업계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성형기술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유커(遊客) 유치 방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커들의 구매력은 중국당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당장 한국이나 동남아 등에 그 효과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내수와 수출산업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 정책도 빛이 바랬다.

대(對)중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다 중간재의 주요 구매처인 중국이 주춤하면서 실효성이 퇴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수출 대책을 발표한 지난 7월에도 중국의 수입수요가 6.4%나 줄면서 수출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3.3% 감소했다. 중국발(發) 쇼크가 해외 투자자금의 신중국 이탈을 야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도 공백해졌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유동자금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진 원화 강세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중국발 쇼크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바라보고 증시에서 외국인 일일 순매매 규모가 2년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되레 유동자금의 이탈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김희철 기자 h913@

### 알립니다 제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 중·벤처 자금조달 큰 장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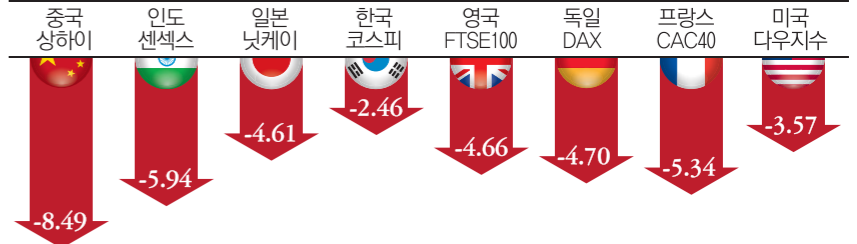
8월31~9월1일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C1·2홀서 17개 은행·신보·중진공 등 참여 대출·투자 상담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오는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전시장 C1·2홀에서 제2회 대한민국 금융 대전을 개최합니다.

한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박람회로 열린다. 정부가 후원하고 17개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포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창업투자회사 등이 나와 대출 및 투자 상담은 물론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 육성정책에 발맞춘 은행과 신용카드사, 30여개 핀테크기업이 세계적인 핀테크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5년 8월 31~9월 1일
- 장소 :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COEX) 전시장 C1·2홀
- 주최 : 경제신문 이투데이
-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노비즈협회, 한국핀테크모임

### 주요 글로벌 증시 24일 하락폭 단위: % (전 거래일 대비)



## '北보다 무서운 中' 코스피 또 하락

남북협상 타결 약발 안먹혀...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혼돈

글로벌 금융시장을 대혼돈으로 몰아 넣었던 24일(현지시간) 중국발 '블랙 먼데 이(월요일에 일어난 추가 폭락 사태)'의 충격이 2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반전했다. 전일 장중 4.01%(1800.75)까지 밀리며 1800선이 위협받았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도 182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새벽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지만 이번 위기의 근원인 중국발 쇼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된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며 전날보다 1% 넘게 상승한 620선에 근접하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도 2% 급락세로 출발해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오전 9시25분 현재 전일 대비 4.11% 떨어진 1만 7778.79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밤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3.57%, S&P500지수는 3.94%, 나스닥지수는 3.82% 각각 급락했다. 다우지수는 1만6000선이 붕괴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또 다우지수는 개장하자마자 10분 만에 1000포인트 넘게 빠지는 등 극심한 혼란을 보였다. 3대 지수 모두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매도세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폭증하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 미국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1200번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뉴욕증시 거래량은 139억주에 달해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전일 대비 45% 오른 40.74를 기록했다. VIX는 장중 90%까지 치솟아 일시적으로 지난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유럽증시도 영국 FTSE100지수가 4.7%, 독일 DAX지수가 4.7%, 프랑스 CAC40지수가 5.3% 각각 급락하는 등 극심한 부진을 보였다. 배준호·정유원 기자 baejh94@

### 데이터 뉴스 Data News

#### '쌀 때 사자' 주식형 펀드 자금 몰려

국내 주식형펀드로 자금이 대거 몰렸다. 펀드 환매 대신 '쌀 때 사자'는 자가 매수 움직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 8142억원이 순유입됐다. 코스피가 2.01% 급락한 지난 21일에도 2277억원이 몰린 것.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에 순유입된 자금이 142억원에 그친 데 반해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세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김경아 기자 kakim@



선물회사 2분기 순이익 크게 늘었다

2분기 선물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분기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47억원으로 전분기 30억원보다 17억원(55.8%) 늘었다. 항목별로는 수탁수수료가 281억원으로 전분기(272억원)와 비교해 9억원(3.3%)가량 증가했다. 이 중 국내 파생상품 수탁수수료가 13억원 증가했고 해외 파생상품은 전분기 대비 4억원 가량 감소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하루 한 생각 周而不比 (주이불비)

널리 친하지만 편당을 짓지 않는다 ▶14면

함영주 내정자 ▶2 심승규 대표 ▶21

마켓&마켓 ▶17~19

만능통장 'ISA'

지배구조 대해부 ▶20

후성그룹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을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 성실이 밑천인 '시골 촌놈'... 자산 290조 메가뱅크 수장 되다

## KEB하나은행장에 함영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진건 '성실함' 밖에 없었다. 선후배들에게 늘 친절했고 모든 일에 앞장서 일했다. 땀뻑한 일상에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주경야독 했고,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 영업의 달인이 됐다. 그 결과, 시골 촌놈은 입행 35년 만에 총자산 290조원을 이끄는 메가뱅크의 수장이 됐다.

충남 민농 아들로 상고 졸업후 임행 실무 전문성 키우기 위해 '주경야독' 현장 영업의 달인... 전국 실적 1위에 직원 1000명 생일 기억 '덕장형' 리더 말단부터 시작 35년만에 행장 결실

자산규모 1위, KEB하나은행의 첫 수장에 오른 함영주 내정자 얘기다. 함 내정자는 말단 은행원을 거쳐 통합은행장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해 내는 추진력으로 행원때부터 주목을 받았다. 1956년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서 태어난 그는 가



### 함영주 내정자는

**생년** 1956년(59세, 충남 부여)  
**학력** 강경상업고, 단국대 회계학과 졸업  
**가족** 부인과 사이서 1남 2녀

### 경력 사항

1980년 9월 서울은행 입행  
1990년 8월 서울은행 기업분석부 조사역  
2002년 11월 서울은행 수지자점 지점장  
2004년 3월 하나은행 분당중앙지점 지점장  
2005년 10월 하나은행 가계영업추진부 부장  
2006년 1월 하나은행 남부지역본부 본부장  
2008년 1월 하나은행 부행장보  
2013년 1월 현 하나은행 부행장 (총칭영업그룹 대표)

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강경상고)에 진학한 그는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했다.

물론 학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실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이듬해 주경야독하며 단국대 회계학과에 진학했다.

서울은행과 하나은행 통합 후 하나은행 분당중앙지점장, 가계영업추진부장을 거쳐 임원 격인 남부지역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현재까지 충청지역에서 뛰어난 영업실적을 이끌어내며 충청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충청영업그룹을 영업실적 전국 1위에 올려놓는 성과를 올렸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끈기와 열정이다. 후배들을 다그치기보다 자신이 솔선수범해 모범이 된다. 전형적인 '덕장형' 인물이다.

함 내정자는 아침식사를 두세 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누구보다 먼저 출근한다. 본부장 때인 상무 시절부터는 조깅을 하면서 후배들과 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총칭영업그룹 대표로 일하면서도 1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이름과 생일, 신상을 모두 기억할 정도로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깊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함 내정자는 늘 시간이 날 때면 후배들과 등산이나 조깅을 하면서 소통에 나신다"며 "임원이란 느낌보다 동네 형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이런 그의 별명은 '시골 촌놈'이다.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고객과 후배들을 섬기다 보니 이런 별명을 갖게 됐다.

이제 함 내정자는 이순(耳順)을 목전에 두고 국내 자산규모 1위(290조원)의 은행을 이끌게 됐다.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다. 그 누구보다 어깨가 무겁다.

함 내정자는 "쟁쟁하신 분들과 경쟁해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장营业을 많이 한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속전속결' 선임 배경은

### 김정태 회장 절대신임 서울은행서 호흡 맞춰 반나절만에 인사 단행

김병호-김한조 양강구도속 깜짝 발탁

'메가뱅크 수장'을 뽑는 과정은 그 어느때 보다 빨랐다. 그리고 은밀했다.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만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반나절 만에 끝났다.

애초 함 내정자는 은행장 경선 레이스에서 부각된 인물이 아니었다. 김병호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하나은행장의 양강구도에서 '다크호스트'만 불리던 인물이다.

이같은 '과격 인사'의 배경이 뭘까. 함 내정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절대 신임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서울은행에서부터 함께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호흡을 맞춰왔다.

하나금융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김 회장이 메가뱅크로 성장한 KEB하나은행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여기서 김 회장의 고민이 묻어난다. 올 초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낸 통합종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내부에서는 김한조 행장을 초대 통합은행장으로 낙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6월까지 합병 작업이 중단되면서 계획이 어그러졌다. 김 회장을 비롯해 수뇌부 모두가 외환 노조를 설득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 과정 속에서 김한조 행장이 '통합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줄어 있었다.

이에 자연스레 업계 시선은 김병호 행장으로 쏠렸다. 재무-전략에 능통한데다 그의 탁월한 글로벌 감각이 은행장으로서 충분하다는 평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가 김승유 회장 사임이란 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1961년생 어린 나이도 걸림돌이 됐다.

결국 김 회장은 이 모두를 감안해 두 은행장을 제치고 부행장을 KEB하나은행의 수장에 올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통합 논의에부터 초대 은행장, 조직구도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얘기들이 시장에 떠돌았다"며 "임추위 과정에서 새어나온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김회장과 수뇌부가 사전 교감을 마치고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함영주 내정자 향후 과제는

### 1 안정적 조직개편 2 수익성 회복 3 전산 통합... "석달내 '화학적 결합' 이뤄낼 것"

인사 이동 등 '채널 갈등' 해소가 최우선

총 자산 290조 메가뱅크를 이끄는 함영주 행장 내정자의 책임은 막중해 졌다.

첫번째 과제는 조직의 화학적 결합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년여간 통합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보여왔다.

2.17 노사정 합의서 해석을 두고 정치권까지 나서 시시비비를 따졌고 서로에게 치명타를 안기는 비방전을 거듭하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1만5717명에 달하는 두 은행 직원들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기대 보다 결합 후 벌어질 채널 갈등에 걱정이 앞섰다. 통합이 확정되고 나서도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얘기가 나돌 때마다 마음을 졸였다. 함 행장 내정자가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한조 외



오는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을 결정해 자산규모 290조원의 국내 최대 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간판 건너편에 설치된 외환은행 본점 광고판에 두 은행의 공동 광고가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환은행장 등 두 명의 유력 후보를 제치고 KEB하나은행의 첫번째 방향키를 잡은 것도 이같은 조직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가진 조직 내 두터운 신뢰와 탁월한 소통 능력이 이번 깜짝인사의 가장 큰 배경이 됐다.

함 내정자는 "통합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은행 직원들을 아우르는 작업"이라며 "두 조직이 제대로 통합할 수 있도록 덕장형 은행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3개월 안에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겠다"며

"이는 통합은행 성공의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화학적 결합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수익성 회복이다. 계좌이동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으로 금융권 무한경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KEB하나은행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통합은행에서 강조점을 두는 것은 영업"이라며 "강력한 영업력을 토대로 리딩뱅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 통합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것도 중요하다. 앞서 하나-외환카드의 전산 작업과정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안겨준 바 있다.

함 내정자는 "전산통합을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객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전산작업 통합을 끝낸 후 영업집중 통합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LOTTE HomeShopping So Smart. So You.

# 당신의 진심으로 롯데홈쇼핑을, 홈쇼핑을 바꿔주세요

롯데홈쇼핑은 진심을 전달할 쇼호스트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롯데홈쇼핑 공식 홈페이지'(www.lottehomeshopping.com) 참조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 일생에 한번은 역사에 미쳐라!

# 유럽을 만든 사람들

한영범 지음 | 1504쪽 | 16,000원

망원경으로 유럽사 전체를 훑으면서도  
현미경으로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속살까지 들여다본다!

1.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가 아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사는 서유럽의 문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유럽의 라틴 문명일 뿐이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문명은 저중세 문명이자 아시아 문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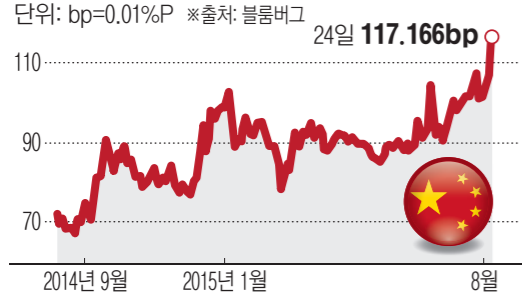
2. 유럽의 고대, 중세, 근대 역사는 유럽 전체의 역사가 아니다  
고대 문명은 남유럽에만 해당하고, 중세는 주로 서유럽에 해당하며, 동유럽과 일부 남유럽에서는 15세기까지 동로마 제국이 유지되어 중세가 따로 없다. 근대는 근대화를 전개한 서유럽과 일부 남유럽에 해당하는 별도의 현상이다.

3. 유럽에 독자적인 문명은 없다  
유럽이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하고 인류를 이끌어온 듯이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유럽인(백인), 언어(알파벳), 종교(기독교), 문명(지중해) 등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건너가 형성된 것이다. 게다가 건너다며 더 크고 높은 꿈을 성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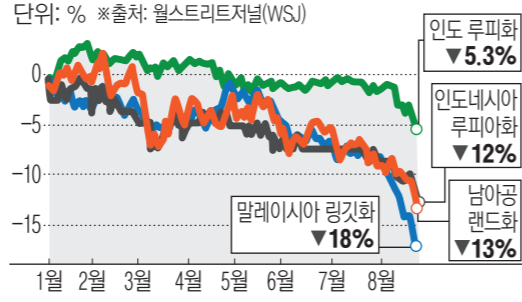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초토화된 신흥국, 손 못쓰는 선진국... “탈출구가 없다”

중국 5년물 국제 CDS 프리미엄 추이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 가치 추이



중국 허난성 위양시의 증권거래소에서 24일(현지시간) 주가 현황판을 보면 투자자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주가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이내 눈을 가리고 있다. 이날 중국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8.5% 폭락해 3209.91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하락폭으로 세계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중국 선전종합지수 역시 7.83% 급락한 1만 970.29로, 중국판 나스닥인 차이넥스트지수도 8.08% 하락한 2152.61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뤼량/신화연합뉴스**

## 중국발 공포에 휘청이는 글로벌 경제

세계 시장이 중국발 공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운데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초저금리 기조에 양적완화로 더이상 쓸 충분한 실탄이 없는 상태다. 신흥국은 통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는 등 초토화된 상태라고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신흥국 통화가치 연일 하락... 한국·말레이 등 국가부도 위험도 급증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저금리 기조·양적완화 영향 실탄 부족  
94년 신흥시장 위기 재연 불안감...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서두를듯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11일 사상 최대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이후 글로벌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약 5조 달러(약 6009조원) 증발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흥국의 국가부도 위험도 급등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집계 따르면 진원지인 중국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5년물 국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이날 117.166bp(bp=0.01%P)로 지난 2013년 8월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말레이시아 부도 위험(189bp)은 2011년 10월, 필리핀(121bp)은 201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 CDS프리미엄도 현재 2013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인 70bp 후반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올 초부터 자본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기둔화 공

포까지 터지면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WSJ는 올 들어 미국 달러화 대비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폭을 살펴보면 인도 루피아화 가치가 5.3%,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12%,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가치가 13%를 각각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링깃화 가치는 올해 18% 이상 떨어지면서 연일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 사이에서 20여년 전의 중국발 신흥시장 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4년 1월 환율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위안화를 급격히 평가절하했다. 이는 미국 달러인상과 겹쳐 같은 해 멕시코 경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단초가 됐다.

여전히 1994년 당시보다 아시아 각국의 경상수

지 외환여건, 외환보유고 등이 개선됐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다시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20년 전과 다르게 중국이 경제 고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부상하면서 많은 신흥국이 현재 중국 수요에 의존하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럼에도 중국발 세계증시 하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도 결국 중국 정부에 있다고 이날 지적했다. 중국은 은행예금 잔고가 약 25조 위안(4646조원)에 이르며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가 4.85%로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를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기준금리는 거의 '제로(0)'에 가깝다.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여지가 없는 것이다.

ING증권의 롱 카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 신뢰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며 “시장을 실망시키지 않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美 연내 금리인상은 시기상조”

서머스 前 미국 재무장관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 안돼”  
“디플레이 우려... 정책 뒤엎는 상황 올수도” 경고 잇따라

중국발 주가 폭락 사태가 세계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연내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사진) 하버드대 교수는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이 위험한 실수를 저지를 것 같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조기 금리인상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추구하는 세 가지 목표인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 금융시장 안정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기 하강과 미국 증시 조정, 유동성 불안 우려 확산 등의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시장이 또다시 흔들리면서 예기치 않은 위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머스의 주장은 연준이 이르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과거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1998년 세계가 금융 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미국이 변영의 오아시스에 머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서 촉발된 신흥시장의 위기가 선진국으로까지 전연되면서 미국이 과연 독단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대목이다.

연준 금융 정책과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나단 라이트 교수는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면 당국은 다음 FOMC에서 금리인상을 보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시장의 진폭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 ‘테일 리스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미즈호투신 투자 고문인 이토 유스케 수석 펀드매니저는 24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매과적인 입장에서 금리인상을 강행하면 과거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리스크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9월 또는 12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나중에 정책을 뒤엎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도 했다.

시장에서 현재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급격히 하락해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24%로 지난 주 시점의 48%에서 크게 떨어졌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능장대응·리더십 공백... 신뢰 잃은 중지도부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전 세계에 새로운 금융위기 리스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중국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가 7% 이상 폭락해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당황한 중국 인민은행은 27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지만 그 다음 주 초까지 주가가 계속 빠졌다. 중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의한 주식 투자, 주식 매매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도 내놓았지만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7월 4일 중국 증권감독이 증권사 간부들을 소집해 2시간 이상의 회의 끝에 대형 증권사 21곳이 총 1200억 위안(약 22조2250억원)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신규 기업공개(IPO)를 연기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이 발표됐다.

주목할 것은 6월 말과 7월 초 사이 리더십의 공백이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7월 3일 닷새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되돌아와 민관이 협력해 증시를 지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호통을 치고 나서야 인민은행과 재정부 등 유관 기관이 긴급 대책에 나섰다

고 신문은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도 7월 초 긴박한 시기에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차 러시아를 방문해 리더십 공백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한 중국 대형 국영 금융기관 고위임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수직적 행정의 폐해다. 경제를 담당하는 장가오리 부총리와 금융을 맡고 있는 마카이 부총리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정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1일 인민은행의 기록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로 다시 한 번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책 변경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제도를 변경해 경기둔화 우려를 고조시킨 것이다. 이에 “시진핑 정부가 시장 위기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며 “이런 초동 대응 실패로 세계적 규모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내달 3일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70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 준비에 만열을 올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전세금 걱정 OUT!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 받으니까 부담도 OUT!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공사에서 책임지고 지급하니까 걱정도 OUT!

전세금에 관한 모든 걱정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1억원 기준 대출금액 8천만원인 경우 월 보증료 8,580~15,83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080-800-9001**

남북 고위급 극적 타결 이후

# 한반도 긴장 해소...경제활성화·노동개혁 고삐 당긴다

차대통령 임기 반환점 당일 합의 가장 큰 경기불안 요소 제거한 셈 소비심리 회복·외국인 관광 증가 기대 하반기 4대개혁 동력확보 골든타임 '중국쇼크' 여전히 변수로 작용

남북고위급협상이 25일 타결되면서 한국경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일촉즉발로 치달던 한반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세월호 사태와 유로존 위기,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특히 체감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지난 달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한국 등 세계 40개국에서의 체감경기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 중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답한 사람이 83%였다. 이는 가나(73%) 등 7개 아프리카 국가를 뚫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67%)보다 높은 수치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엔저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최근 남북 간 대치로 여전히 우려가 컸다. 이런 와중에 남북고위급협상 타결은 가장 큰 경기불안 요소를 제거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에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큰 국내 변수 하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된 25일 서울 동작동 서울역사에서 한 시민이 텔레비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회담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일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호응해 우리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만 지난 11-13일 급작스러운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이은 경기둔화 우려 등 이른바 '중국발 위기'는 여전히 변수다. 최근 4주간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외국인 자금 규모만 13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등 중국 불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입법의 고삐를 더욱 세게 당길 것으로 보인다. 남북고위급 협상이 타결된 날은 공고하게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당일이다. 후반기 국정운영의 시작과 맞물린 만큼 국정의 추진동력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올 하반기를 노동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반드시 노동개혁을 완료해야 금융 등 나머지 개혁과제들의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시작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나흘째 가진 고위급 접촉에서 북측은 준전시상태 해제와 지뢰도발·포격도발에 대한 유감표명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군사적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 고위

급 회담을 지속해 나가고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9월 초 갖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 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익중 기자 zerg@

새누리, 충남서 '1박2일 연찬회'

## 한국경제 진단·노동개혁 강의 최경환 부총리 등 장관 총출동

새누리당은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노동개혁'과 '안보'에 초점을 맞춘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새누리당 연찬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까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다. 이 자리에는 당·정·청이 모여 노동시장 개혁과 북한 도발 사태, 경제활성화 방안 처리, 내년 총선 대비 전략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삼일위원회법 입법 과제와 내년도 예산편성안 등을 놓고 당정 협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당은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와 서부전선 포격 도발 등에 따른 남북 대치국면 및 남북 고위급국가 접촉을 통한 타결안에 대해 정부 측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 이후 열린 남북고위급국가접촉에서 남북 대표로 나선 최정호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015년 하반기 경제동향, 김중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한국경제의 현안과 진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이밖에 내년 4월에 시행되는 20대 총선거를 대비해 '총선 톨' 등 전략을 구상하는 자리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예정된 자유토론회에서는 오픈포머리(완전국민권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당은 북한과의 군사갈등 고조로 연찬회 연기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급속한 타결이 성사됐고 또 4대개혁 및 경제법안 등 시급한 쟁점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아 정책 공조를 위한 연찬회를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 글로벌 금융시장 대책 논의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금융시장 하락 및 대북위협 요인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과 그간 발표된 중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국토부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 공약불

LH 제외엔 빛 1조5000억 늘어 "정부 할인정책·빚 떠넘기기 탓"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하면 1년간 1조 원 넘게 증가하는 등 방만경영 개선책이 무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4개 공기업 부채는 2014년말기준 216조8174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말에 비해 3조 3698억3200만원 감소한 것이지만 LH공사의 부채감소액을 제외하면 다른 기관들은 되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국토교통부산하 24개 기관 중 부채가 증가한 곳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해운 등 12개 기관으로 드러났다.

###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 부채 현황

기업명	2013년 총부채	2014년 총부채
한국도로공사	25,861,749	26,462,184
한국철도공사	14,588,280	15,033,523
주택도시보증공사	883,433	915,463
한국철도시설공단	18,198,340	18,979,208
교통안전공단	92,735	121,735
한국공항공사	390,214	396,28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043	3,514
한국국토정보공사	148,880	149,138
코레일유통	70,963	77,799
코레일로지스	17,832	17,951

감소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위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원 등 12곳이다. 특히 이 기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808억6800만원, 한국도로공사는 6004억 3500만원, 한국철도공사가 4452억4300만원의 부채가 각각 증가해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부채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2014년말 기준 하루를 기준으로 이 자를 가장 많이 부담한 공기업은 LH공사로 매일 114억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매일 30억83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억13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13억6400만원의 이자를 매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LH를 제외하고 국토부 산하 기업들의 부채가 줄지 않는 것은 정부의 할인정책과 부채 떠넘기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통령료 감면으로 도로공사가 떠안은 149억원 가량의 손실과 같은 기간 '내일로'열차 무료정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15억6700만원의 손해가 이 같은 상황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 임금피크제로 청년채용 中企 1080만원 지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 시행 2018년 말까지 한시적 운영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시행에 나섰다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청년 고용활력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8년 말까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내용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연 540만원) 지급
수혜 규모	연간 1만명
방식	공모제 방식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산	123억원(추경, 고용보험기금 전액)

\*출처: 고용노동부

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다.

이에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

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요건은 △상생 노력과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임금피크제 등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 시행 이후 새로이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나, 1:1 매칭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과정에서 청년 고용장출증대 노력을 고려해 적정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김부미 기자 boomii@

## 국토부 "금융권도 '뉴스테이' 투자를"

금융업계 CEO와 간담회

정부가 지난 주 건설업계에 이어 금융업에도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2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민간임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뉴스테이법이 시행돼 민간임대 촉진

지구가 도입되고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임대주택이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를 연계하는 도점점 개편안이 통과돼 금융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금융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수수료 인하, 리츠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해왔고 내년 1월부터는 임대주택리츠에 대출을 실행할 때 부과되던 주택금융신용보증 수수료(대출금액의 연 0.3%)도 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 공모사업에서 FI(재무투자자)는 사업조건 확정 전에 투자자의 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의무가 없는 투자자의 형태로 컨소시엄에 참여를 허용하고 신용평가방식 역시 금융업계의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를 활용하도록 대체할 방침이다. 구성현·김우람 기자 carlove@

## 갯벌 복원해 자원화 생태관광·어업 육성

해수부 '갯벌 종합계획' 마련

정부가 갯벌의 기능과 가치 보전과 함께 갯벌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복원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는 △갯벌복원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갯벌어업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의 3대 목표를 설정해 갯벌 자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갯벌의 1km<sup>2</sup> 당 간 제공가치는 약 63억 원으로 갯벌 전체적으로 연간 약 16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성영 기자 sympark@

# “의무휴업 풀어달라” 대형마트 공개변론

대법, 내달 18일 전원합의체 회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일까.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심리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18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판약이 관건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형마트들은 휴일에 정상영업을 하는 것은 물론 예전처럼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의무휴업을 지정의 필요성과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은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적지 않을 것이

나 중소기업투자,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형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기업인인데도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에 이번 소송을 낸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포함되는 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법은 대형마트를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으로 점원도 50명 이상인 점포 집단’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등에서는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좌영길 기자 jy97@

태풍 ‘고니’가 온다



제15호 태풍 ‘고니(GONI)’의 북상에 대비해 24일 오후 울산시 북구 강동동 정자항에 어선들이 대피하고 있다. 울산/뉴스시스

# ‘7년간 특허료 인상 금지’ 조건 공정위 ‘MS·노키아’ 합병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25일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특허납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MS가 특허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MS는 2013년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번 인수는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하게 돼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또 MS가 스마트폰 업체들과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이 경쟁사 간 영업정보 교환의 근거가 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MS는 2014년 8월 경쟁제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과 함께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MS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안을 마련,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추가하고, 판매금지소송 제한지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히는 등 시정방안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을 보면, MS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 조건을 항상 준수하고, 국내 스마트폰·태블릿 제조사에 대해 판매·수입금지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사용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하고, 향후 5년 간 양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시정방안의 효력기간은 7년이며 MS는 동의의결일 이후 매년 시정방안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박성명 기자 sypark@

# 檢, 마지막 승부수... 정준양 곧 소환

포스코 수사 마무리 수순될 듯

검찰이 정준양(6&)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성호(60) 전 중앙종합건설 대표에게 인도사업 수주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정 전 회장을 조만간 검찰로 불러 조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2010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공동발주했고, 인도 마하리슈타라주에 아연도금 강관을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 공사다. 검찰은 3000억원 대에 달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동양증권 측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정 전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친다면 6개월 여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는 초기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내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200억원 대 비자금을 들춰낸 때만 해도 이 회사 정동화(64) 전 부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으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포스코 그룹 전반은 물론 ‘영포라인’으로 얽힌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폭넓은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포스코 건설과 그룹 본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고, 배 전 대표도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준양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데서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검찰은 특수수사를 6개월 여간 진행하고도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과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입증하는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를 쥐게 된다. 좌영길 기자 jy97@

# ‘재취업 60세’ 아직도 국민연금 내세요?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 납부여부 살펴야

조기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혹 내지 말아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양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노후준비 부족과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쉬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물론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법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지 일부 회사가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독일계 협력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연구원 기소

독일계 협력업체로 이직하면서 원래 있던 기업의 초저은 보냉제 기술을 무단 유출한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사 연구원 출신 박모(32)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냉제 개발·생산업체 D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 15차례 걸쳐 회사가 보유한 초저온보냉제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수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유출한 ‘LNG선 카고탱크 초저온보냉제’ 제조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올해 3월 D사에 초저온보냉제 원료를 공급하는 독일계 화학업체 B사의 한국법인으로 이직했다. 좌영길 기자 jy97@

# 면세점 심사 사전유출 의혹 금융당국, 관세청 직원 조사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결과와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가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한화갤러리아 등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3곳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6시간여 전인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상승제한폭인 30%까지 폭등하면서 심사결과와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관세청은 시장에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8~10일 2박 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합숙 심사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왔고 일부 직원이 합숙 과정에서 비상용 휴대전화로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경희의 미래 · 인류의 미래

# 대학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6월 개최된 경희대학교 미래대학리포트 출범식, 소셜믹션 진행 모습  
지난 5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2015세계대학총장회 50주년 기념식

## 경희대학교가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수렴한 <미래대학리포트 2015>를 발간했습니다

### 재학생 1만 4천여 명이 함께 성찰하고 상상했습니다

‘대학의 위기’, ‘문명의 붕괴’가 화자되는 이 시대, 경희는 ‘나의 가치’, ‘인간의 가치’, ‘문명의 미래’를 탐색하는 설문조사와 소셜믹션, 포커스그룹 인터뷰, 미래연표, 긍정탐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여기’ 대학인의 삶을 성찰하고, 50년 후 도래할 미래사회를 상상했습니다.

### 지구적 대학혁신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대학, 과연 제대로 좋은가’,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21세기 세계지성이 내놓는 문화화두와 함께 <미래대학리포트>가 던지는 근본 질문입니다. 미래사회,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꿈과 희망, 열정과 포부를 반영하며 21세기 고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를 창출합니다.

### 국내외 학계와 시민사회의 집단지성을 기대합니다

‘경희의 상상’을 사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고등교육의 가이드라인 (Global Eminence Index) 구축을 제안합니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문명’, ‘더 나은 대학의 미래’를 함께 모색할 국내외 지성과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 입학처 : iphak.khu.ac.kr 연락처 : 1544 - 2828)

전형	내용	일정
학생부종합	원서접수	2015. 9. 9(수) ~ 12(토) 17:00
	논술고사	2015. 11. 14(토) ~ 15(일)
논술우수자	실기고사, 특기재평가(면접)	홈페이지 참조
	면접고사	2015. 11. 28(토) ~ 29(일)
실기우수자	네오레상스, 고른기회(1·II), 단원고특별	2015. 10. 25(일)
	특성화고졸재직자	

미래대학을 선도하는 경희대학교와 함께 할 교원을 초빙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bang.khu.ac.kr/hjis2/)를 참조 바랍니다.



# “위안부 진실, 알려야 합니다”... ‘일본의 양심’ 숨쉬는 공간

**여성이 역사를 낳는다**  
세계 여성박물관 현지 취재

7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위안부 관련 자료 수집·전시  
운영난 속에서도 개관 10주년  
우익단체 항의시위 우려  
비교적 안전한 대학 안에 위치  
“日정부 공식 사과·배상이 목적”



▲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군대 위안부’ 내용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황판이 벽에 설치돼 있다.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모아 놓은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와세다대학 캠퍼스 내부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과 평화자료관(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이다. 2005년 8월 개관한 WAM은 도쿄 변화가인 신주쿠(新宿) 와세다(早稻田)대학 캠퍼스 내 아바코(AVACO)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자료관에 가면 동남아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사진부터 만나게 된다. 벽면에 빼곡한 그 사진은 “우리의 존재를 알아 달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케다씨는 NHK를 장년퇴직한 이듬해인 2011년 이곳 관장을 맡았다.

WAM의 존재 목적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고 배상토록 하는 데 있다. 일본 사람들 가운데에선 이곳을 방문하고서야 위안부의 존재를 안 이들도 많다. 이케다 관장은 인식의 확장을 원한다며 “일본 정부가 숨기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재 시 관련 자료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받는다. 그런데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자 직원이 웃으며 돈을 내라고 했다. 팸플릿이나 책자를 모두 유상으로 제공한다고 했다. 마쓰이 대표의 유산과 일부 개인 지원만으로는 자료관 운영이 쉽지 않음을 직감하게 했다. 매년 적자란다. 변화가에 있어 임대료도 비싸지 않으나 몰랐더니 이케다 관장은 “개인들의 공간 제안도 있었지만 우익 단체들이 와서 방해하면 위험하다. 여기는 학교 근처라 안전해서 택했다”면서 “시대 상황과 정부가 금기시하는 여성사를 알리는 데 10년간 버티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글·사진 김경윤 기획취재팀 부장 s914@

**특별취재반**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민태성 부장(전 뉴욕특파원) △김윤경 기획취재팀 부장 △김민정 기획취재팀 기자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이지만 일본은 침략지에서 패퇴(敗退)해야 했던 날이다. 일본은 못내 억울했던지 종전 조서에서도 패배와 항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히로히토(裕仁)의 항복 결정을 성단(聖斷)이라는 말로 호도했다.

이러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은 70년이나 지난 지금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익 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를 담은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올해도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잊지 않았다.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한 고노(河

野) 담화 철회 서명 운동이 도쿄(東京) 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본군들의 성노예가 되어 여성으로서의 권리,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를 유린당했던 위안부는 20만 명이나 됐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런 죄목의 재판은 없었다. 그런데 2000년 12월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를 단죄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이 열렸다. 아사히(朝日)신문 기자 출신인 마쓰이 야요리(松井耶依) 바우넷(VAWW-NET: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 재판 대표와 윤정옥 전 이화여대 교수, 팔리핀의 인디야 사호루 여성 인권을 위한 아시아 센터 대표 세 명이 주도해 열린 이 법정(물론 진짜 법정 아니라 이벤트였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죄목으로 일왕과 일본 정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전 세계에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킨 중요한 계기가 됐다.

마쓰이 야요리 대표는 기자였을 때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재와 일본의 잘못을 알리는 데 힘썼다. 남성들이 잘 가지 않는 아시아 지역 특파원을 자원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의 신산했던 삶이 계기가 됐다. 그는 1991년부터 아시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을 대신해 나섰지만 일본 정부를 피고로 했던 10여건의 재판 모두 패소하고 만다.

NHK에서 PD로 근무하고 있던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씨는 1991년 우연히 오키나와에 있던 배봉기 할머니를 취재하게 된다. 양심은 그를 움직이게 했

다. 그해부터 1997년까지 NHK 교육채널(ETV)에서 8편의 위안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마쓰이 대표와도 가까워졌다. 여성국제전범법정 취재도 했다. 그런데 정작 방송된 것은 뒷선 에 의해 마구잡이로 편집된 내용이었다. 마쓰이 대표 인터뷰는 지워졌고 누가 피고인지와 이유, 일왕에 대한 유죄판결도 다 편집당했다. 그 뒤론 위안부와 관련된 취재 계획이 뒷선에서 다 거부됐다.

30여 년간 여성 인권 향상과 위안부 문제 해결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마쓰이 대표는 2002년 말기 간암 판정을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유산과 자료를 위탁하며 위안부 박물관을 만들어줄 것을 주변에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건립된 것이 바로 ‘여성들의 전쟁



위안부 관련 자료들에 대해 설명하는 이케다 에리코 WAM 관장.

**이케다 에리코 ‘WAM’ 관장**

## “아베 총리도 이곳 전시물 본다면 과거사 부정 못해”

1991년 취재 통해 ‘위안부’ 처음 알았죠  
기자사는 안 와도 세계언론 많이 옵니다

위안부 증언을 했던 할머니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전쟁을 경험 못한 세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일본의 학생들은 위안부의 존재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 역사 교과서로 학습하고 있다. 성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금기시하는 것이 위안부라는 존재다.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65)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관장은 역사를 부정하고 가리킨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안부 관련 자료를 모으고 세상에 알리고 있다. 엄연히 존재했던 위안소를 증언을 토대로 지도로 만들었다. 위안소의 규정과 사진, 공문서, 증언 비디오 등이 작은 자료관 내에 빼곡하게 있다. 방문자들이 쓴 감상 노트에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다는 내용이 많다. 사실 이케다 관장 또한 1991년까지 위안부의 존재를 몰랐다.

“NHK에서 PD로 근무하다 1991년 취재를 통해 위안부의 존재를 알게 됐다. 태평양전쟁 당시 중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아버지도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위안부와 관련한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1997년까지 8편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지만 일본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터. “위안부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우익 단체들이 항의와 협박을 했다. 어머니만 살고 계신 내 고향에 내려가 항의를 했고 격렬하게 맞붙기도 했다. 그래도 이걸 우리 일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거의 취재를 오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취재하러 온다. 힘들어도 우리가 자료관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긴다.”

이케다 관장은 “매년 적자이고 어렵지만 앞으로 도 지금까지 해 온 일을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에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게 하고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게 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다. 정부가 무조건 숨기려 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현재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난징(南京)대학살, 쇼와(昭和)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를 모두 금기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나서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일본인 중에도 의식이 있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료관을 찾아온다. 특히 교육자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여기에 와서 전시물을 본다면 과거를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작지만 출발 후 10년간 꾀꼬리처럼 운영해 온 WAM. 부끄럽고 안타까운 과거를 갈무리하고 그것을 전과하려는 의지력이 이 작은 공간에 충만했다. 도쿄=김경윤 기획취재팀 부장 s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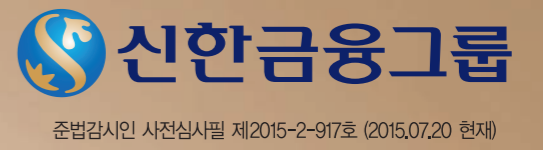
www.childfund.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당신의 하루에는 미래가 보이나요?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로 당신의 하루하루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어린이를 돕는 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세요.

|정기후원| 1588-1940



#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적금을 만나면 고객의 금융이 건강해집니다

신한은행의 마음은 언제나 고객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더 많은 분께 부담은 줄이고, 기쁨은 더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주거래 은행은 역시 신한은행입니다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우대금리는 올리고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



급여거래, 생활거래 등 입금 거래 종류에 따라  
수수료 혜택을 자동으로 드리는 편리한 입출금 통장

출시



직장인, 자영업, 주부 등 누구나 입출 거래에 따라  
최고 1.3% 우대를 더해 최고 이자 연 2.8%를 드리는 적금  
(3년제, 우대이자율 포함, 세전)

출시

\*이 예금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2015년 한국 소비자품질지수(KS-SQI) 은행부문 1위 | 한국표준협회 주관  
2015년 대한민국 최고기업 은행부문 대상 | 한국경영인협회 주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 ‘자산 33조’ 대우증권 누구 품으로

산은 금융 자회사 매각 계획·KB금융지주 등 후보로 거론  
자산운용과 패키지 혹은 개별·외국계 자본 인수 가능성도

대우증권이 15년만에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자산규모 33조원의 업계 2위 대우증권의 새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금융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만큼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매수 후보자로는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중국의 금융그룹인 시틱(CITIC)과 안방보험도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도 외국계 자본 인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 대우증권 인수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24일 이사회에서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에 대한 보유주식 전량 매각 등의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시장 상황에 따라 패키지 또는 개별매각으로 병행되고, 산은캐피탈은 개별매각으로 추진된다.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1억4048만1383주(보통주 기준 43%), 산은자산운용 777만8956주

(100%), 산은캐피탈 6212만4661주(99.92%)를 보유하고 있다. 장부가 기준으로 대우증권만 1조7700억원이 넘는다.

대우증권의 주식 가치는 1조6506억6725만원(24일 종가 기준)으로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면 2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고가로 인수 참여가 저조해질 것을 감안해 부분 매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대현 정책기획본부 부행장은 “주식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분 매각이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다”며 “매수자의 관심도와 시장의 흥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외국계 자본 인수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행장은 “다만 어떻게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 진행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7인의 전문가로 구

**산업은행 보유주식** \*출처: KDB산업은행

회사명	보유주식수	장부가	보유지분율 (보통주 기준)
대우증권	1억4048만1383주	1조7759억원	43%
산은자산운용	777만8956주	634억원	100%
산은캐피탈	6212만4661주	5973억원	99.92%

성된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법률자문가인 신회택 사외이사가 합의를 주도했으며, 나머지 위원 6명은 매각업무와 관련된 부문장으로 선임됐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은행은 25일 매각자문사 공고를 낸 후 매각자문사를 선정, 매도실사 및 시장 태평 등을 거쳐 10월 초 주시 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다. 매각기간사는 국내, 국외 각 1개사, 회계 및 법률자문사 각 1개사로 선정되며, 산은 M&A실은 매각기간사 선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 부행장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 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상반기에 모든 매각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홍성별 기자 byul0104@

# 민영화로 계열사 없는 우리銀 다른 금융회사와 협업 늘린다

키움운용과 상품 공동개발·판매·관리  
삼성증권과 은행·증권 복합점포 운영  
현대캐피탈과 증금리대출 연계영업도

우리은행이 타업권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협업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통해 그룹내 시너지 제고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민영화에 따른 계열사 매각으로 연계할 계열사가 없어 제휴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에프앤가이드(FnGuide)-키움 스마트증소형주지수를 추종하는 키움 증소형주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를 전 지점을 통해 판매한다.

이 펀드는 코스닥 종목을 제외한 거래소 증소형주 중 재무안정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들을 선별해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증소형주 펀드다.

우리은행이 키움투자자산운용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지난 5월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키움투자자산운용과 펀드의 개발·판매·관리에 이르는 각

단계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우리은행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면 우리은행은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판매를 담당하는 윈윈(Win-Win)전략이다. 펀드 수탁은행, 일반사무관리 업무와 같은 자산운용 관련 부수업무에 대한 협력도 진행한다.

우리투자증권 매각 이후 생긴 계열 증권사 부재는 삼성증권과의 협력으로 극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삼성증권과 손잡고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공동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 예·적금 및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금융지주 체제의 은행들이 판매하는 증권 파생상품을 삼성증권으로 부터 공급받게 됐다.

증금리대출 수요는 현대캐피탈과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현대캐피탈은 지난 6월 제휴를 통해 우리은행 현대캐피탈과 연계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도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대출이 안되는 우리은행 고객은 현대캐피탈을 이용하면 금리 할인 혜택과 맞춤형 대출 상담을 받게 한다. 현대캐피탈과 우리은행은 각각 전담 조직을 꾸려 연계영업을 활성화하고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 하나금융·중지리대 금융전문과정 개설



하나금융은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지린대학교에서 제10기 중국 하나금융전문과정을 개설했다. 중국 하나금융전문과정은 2006년 처음 시작돼 매년 하나금융과 중국 지린은행, 지린대가 공동 주관하는 단기 금융전문과정이다. 지난해 제9기까지 모두 46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10기 과정에는 45명이 연수생으로 참여해 뉴노멀시대 진입과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대해 수강한다. (왼쪽부터)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이호형 주중한국대사관 재경관, 이정영 금융연수원장, 강만수 전기획재정부 장관, 김명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장바오상 길림은행 동사장, 천귀강 길림대학교 부총장, 류진취원 길림대학교 상학원장, 지성규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행장, 장웨이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장춘분행장. 사진제공 하나금융

## 핀테크 공동플랫폼 추진...실무협의회 출범 금융위 계획 후속조치...은행·금융투자업권 등 2개로 운영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24일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제3차 핀테크 데모데이 시 발표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산업 인프라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잔액조회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면 핀테크 기업이 이를 기존 가계부 앱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은행권 실무협의회는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과 금융투자협회와 코스콤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업권 등 2개 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이다.

향후 오픈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서비스 개발자 입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핀테크 기업들과 제도·보안·기술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할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인터넷정보진흥원 등 관련 기관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실무협의회는 운영과정에서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의 서비스 대상 및 데이터 범위를 확정하고 세부 표준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별 기자 byul0104@

## “아반떼 살때 선수금 20% 내면 3년간 제로금리”

현대캐피탈 현대·기아차 할부 프로모션

현대캐피탈이 현대·기아차 주요 차종에 대해 초저금리 할부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현대차 대표 인기 차종인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를 포함해 아슬라,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쏘나타 HEV, 그랜저 HEV), PVL(i30, i40, 벨로스터)를 저금리에 구매할 수 있다.

아반떼의 경우 선수금 20%만 내면 ‘Zero’금리(36개월)로 내차를 만들 수 있다. 고객이 차량가 1410만원의 아반떼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선수금 20%, 선수금 290만원) 정상금리(36개월 4.9%) 대비 약 86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기아차도 대표 인기 차종인 K3, K7, 스포티지, 모닝을 포함한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K5 HEV, K7 HEV)/전기차(레이 EV, 쏘울 EV)를 저금리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K3와 K7, 스포티지, 모닝의 경



우 선수금 15%만 내면 36개월 1.9%, 48개월 2.9%, 60개월 3.9% 저금리로 내차를 만들 수 있다. 고객이 차량가 1,400만원의 K3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선수금 15%, 선수금 213만원) 정상금리(36개월 4.9%) 대비 약 57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 다른 차량도 최저 4.9% 수준부터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Beyond the First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5196호(2015.07.28~2016.07.27)

이기는 사람에겐 노하우가 있다

## 이기는 연금으로 시작하세요

고박고박 오르는 물가 걱정을 이기는 연금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는 연금

은퇴 후에도 당신의 씬스미어를 이기는 연금

지금 당신은

노후의 자금 걱정을 이길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라면 이기는 연금을 시작하세요

국내최대증권사\* NH투자증권이 선보이는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 당신을 이기게 합니다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총자산 1위, 자기자본 1위 / 2015년 3월 금융원 공시기준

상담만 받아도 마음드든, 티볼리로 행운드든

## NH투자증권 백세드든연금 EVENT

행사기간 : 2015. 7. 1 ~ 11. 30 | 대상상품 :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IRP | 대상고객 : 신규, 기존 가입고객 및 이전고객

**1 EVENT** 마음드든! 상담 이벤트

연금저축계좌, IRP 상담 후 계좌 개설만 해도 사은품 즉시 증정

☎️ 전화7곡 | 📄 주방세제 | 📺 우산

지정상품 한정수량, 선착순 1만명

**2 EVENT** 두손드든! 가입 및 이전 이벤트

연금저축계좌, IRP 가입 및 이전 고객에게 금액별 백화점 상품권 증정

조건	혜택
3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만원권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만원권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만원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만원권
1억원 이상	30만원권

**3 EVENT** 기분드든! 적립식 가입 이벤트

연금저축계좌, IRP를 통해 신규 적립식 가입 고객 중 20만원 이상 매수하고, 3년 이상 이체 약속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증정

**4 EVENT** 행운폭발! 티볼리 추천 이벤트

EVENT2 대상 고객 중 추천을 통해 자동차 티볼리 증정

▶️ 최초 300만원 입금시 추천권 1매 부여

1천만원 돌파시 2매+1천만원 당 추천권 추가가매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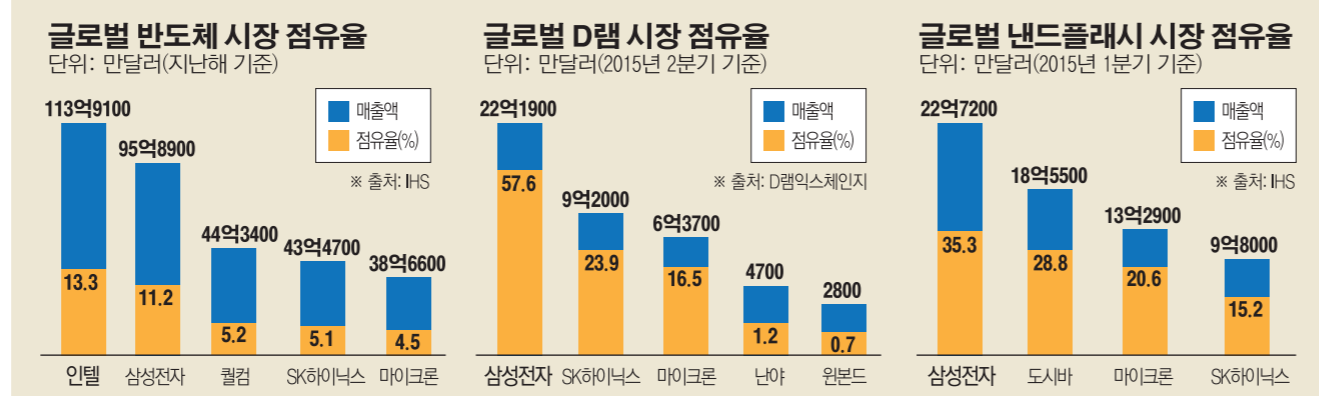
\* 5만원 초과 교통 수령시 22% 제세공과금에 고객 부담 \* 추천 이벤트 시은 티볼리는 TXA/T로으로 차량가격에 한하며, 휘통세는 당행차 부담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센터를 통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하고 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며,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본 상품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해지) 전에 (간)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세율은 납세자의 상황에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nhwm.com
고객지원센터 1544-0000

# 삼성·SK,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리더' 노린다

SK하이닉스 '46조 투자' 실행  
삼성은 평택공장에 15조 투입  
독보적 선두자리 굳히기 시동  
모바일 시장 선점, 시스템 도약  
"인텔 넘고 中 추격 따돌리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과 SK가 독보적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나섰다. 22년 연속 메모리반도체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불과 3년만에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선도기업으로 성장한 SK하이닉스는 수십 조원에 달하는 미래형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리더' 자리 굳건히 = 삼성과 SK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이유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현재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업체 대비 압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을 제치고,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SK하이닉스보다 앞서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단일 반도체 생산라인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6000억원을 투입하며 향후 40년 반도체 산업 밑거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최신 제품을 생산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서버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시장까지 선점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스템반도체 분야

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평택 반도체 라인을 전진기지로 삼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펼칠 방침이다.

글로벌 모바일 D램 시장은 국내 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반도체 전자상거래사이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모바일 D램 시장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삼성전자 57.6%, SK하이닉스 23.9%로 양사 점유율은 81.5%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분기(52.1%)보다 5.5%포인트 높아졌고, SK하이닉스 역시 점유율이 1분기(22.9%)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메모리반도체 시장 3강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같은 기

간(22.6%) 무려 6.1%포인트 하락한 16.5%에 그쳤다.

▷인텔 아성 넘고, 中 추격 따돌리자 = 양사의 대규모 투자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선두 탈환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텔에 뒤처져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기술력이 크게 앞서 있는 반면,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한 자릿수 점유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매

출액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인텔이 13.3%로 1위, 삼성전자가 11.2%로 2위다. 퀄컴(5.2%), SK하이닉스(5.1%), 마이크론(4.5%)이 뒤를 잇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 팔컴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선 이후 인텔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인텔은 지난 6월 휴대폰 네트워크 장비 및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업체 알테라를 167억 달러(18조5000억원)에 인수합병(M&A)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역시 지난해 '국가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며 1200억 위안(약 2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반도체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낙점했다. 올 3월에는 중국 최대 LCD(액정표시장치) 업체 BOE가 메모리반도체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중국 칭화유니그룹의 마이크론 인수설이 불거지는 등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시간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 인수설이 현실화되고, 동시에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면 국내와 중국 업체 간 기술격차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내에 좁혀질 수 있다"며 "공장 유지·보수와 라인 증설, 공장 신설 등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격차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y@

# '파업' 금호타이어 손실 400억 넘어

임금피크제 이견 합의 쉽지 않아  
한국타이어도 사상 첫 파업 압박

금호타이어 노조의 전면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면서 회사의 매출 손실이 400억원에 육박했다. 노사 갈등의 격화가 타이어업계 하방기 최대 악재로 떠올랐다.

25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파업으로 23일까지 370억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회사는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하루 52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24일 이후에는 손실 규모가 42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의 매출 손실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사는 지난 19일 마지막 교섭 이후 협상을 중단했다. 더욱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 단기간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조는 지난 11-14일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17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나서고 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해당 영역 1900명 인상, 일시급 300만원 지급, 정년 61세로 연장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임금 8.3% 정률 인상, 2014년 경영성과급 배분, 기피 직무 수당 지급, 1958년생 정년 연장을 요구에 답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의 사상 첫 파업도 임박했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21일부터 사흘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86.3%가 찬성했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1962년 설립된 이후 사상 첫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급을 둘러싼 노사간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본급 6.7% 정률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기상여금 중 600% 통상임금 전환, 업황부진 등을 이유로 기본급 1% 인상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기간인 15일이 지나면 다음달 초부터는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현대차 '고성능 N' 첫 차 나온다

내달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공개... 2년내 상용화 계획

현대자동차가 다음달 개막하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고성능 브랜드 N의 첫 차종을 공개한다. 2년 내에 상용차를 출시해 정익선 부회장의 숙원을 풀겠다는 각오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달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N 브랜드의 첫 번째 콘셉트 카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모터쇼에서 N 브랜드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고품격 브랜드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N은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를 뜻한다. 현대기아차 기술 개발의 심장인 남양연구소의 영문 머릿글자(N)를 따왔다.

현대차의 고성능 라인업 N 시리즈는 폭스바겐의 R라인을 모티브로 개발했다. 고성능 라인업을 통해 현대차의 위상과 점유율을 동시에 높일겠다는 복안이다.

고성능차는 정익선 부회장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정 부회장은 2012년 고성능 차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강도 높은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BMW의 고성능 모델인 M 시리즈의 연구소장을 지난 7년간 지낸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 영입을 밝히면서 고성능 라인업 개발에 속도를 올렸다.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은 BMW에서 고성능차의 핵심 요소인 주행성능을 담당할 전문가다. 지난 4월부터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합류한 그는 현재 고성능차 개발과 함께 주행성능, 안전성능, 내구성능, 소음진동, 차량 시스템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현대차의 N브랜드는 BMW의 M, 메르세데스-벤츠의 AMG 등과 같은 고성능 모델 라인업이다. 현재 WRC에 참가하는 i20 월드 랠리카는 남양연구소와 현대모터스 포츠팀이 공동 개발한 첫 결과물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것은 기존 차량을 활용한 기존 콘셉트카와 달리 완전히 새로 설계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근 기자 nova@

# 'U+프로야구' 앱 이용자 100만명 돌파



LG유플러스는 프로야구 전용 애플리케이션 'U+프로야구'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U+프로야구는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스마트폰 한 화면에서 최대 4개까지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야구 중계 특화 앱으로, '4채널 멀티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2시간 되돌려 보는 '타임머신', 0.5배 느리게 보는 '슬로우모션', '투구 분석해주는 '투구추적' 등의 기능도 지원한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 열흘 앞둔 'IFA 2015' 국내기업 전략

## SAMSUNG IoT 기반 스마트홈 LG OLED TV

삼성, 스마트워치 '기어S2' 선보여  
LG, 프리미엄 TV라인업 전시  
'G패드 II 10.1' 등도 공개할 듯  
LGD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개

세계가전박람회(IFA)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력 제품과 차세대 기술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다음달 4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5에 주력 제품인 OLED TV를 대거 공개하며 OLED TV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 IFA에서

도 TV가 주요 경쟁 제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55인치와 65인치 평면 울트라 OLED TV 등 앞선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슬림 베젤로 화면 몰입감을 극대화한 'G패드 II 10.1', 무선 오디오 신제품들을 전시한다. 또 자체 네트워크로 구동되는 멀티룸 기술도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과 일곱 번째 스마트워치인 '기어S2'를 선보인다. 기어S2는 원형 스마트워치로 전자 대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음식이 지나 카페 확인이 가능한 소셜카머스, 여행 및 야외 스포츠 정보제공 등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기어S2에 담겼다.

이밖에도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은 이번 IFA에서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주제로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왔는지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대세인 4K(UHD·초고해상도)와 커브드 다음에 산업을 이끌 투병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일본 소니와 중국 화웨이는 새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니는 주력 라인업인 엑스페리아Z 시리즈 대신 중고가 M시리즈나 보급형 C 시리즈를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20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탑재한 대화면 스마트폰 메이트8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ZTE나 HTC 등도 IFA에서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본입찰' 홈플러스 8조나 4조나

사모펀드 3곳 인수제한서 제출  
테스코 8조 기대...업계 4조 평가  
가격 안 맞으면 유찰 가능성도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사모투자펀드(PEF)를 새 주인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영국 테스코그룹과 매각 주관사 HSBC증권이 실시한 본입찰에 국내 최대 PEF인 MBK파트너스, 아시아 지역 투자 전문회사인 어퍼니티파트너스(UPN)와 미국 대형 PEF인 콜버그크레이브스앤코(KKR)의 컨소시엄, 칼라일그룹 등 3곳이 인수제한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과 캐나다연기금, 싱가포르프리카 등 재무적 투자자(FI)로 영입됐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에 최대 1조원의 투자 확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라일은 싱가포르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처(GIC)를 FI로

끌어들였다. 최종적으로 인수전은 예비입찰을 통과한 PEF 5곳 중 3개의 PEF 컨소시엄 간의 경쟁이 됐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인수가격이 포함된 인수제한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25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3곳이 인수 희망가격으로 얼마를 써냈을 지가 관건이다. 테스코사와 HSBC증권은 8조원 이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유통업계에선 홈플러스가 체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매각후 재입대)으로 노르웨이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4조원대로 평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총매출액 8조5682억원, 영업이익 2409억원을 보였지만 순손실 3002억원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본입찰 이후 다시 경쟁을 벌이는 경매 호가 입찰(프로그레시브 빌) 과정을 거쳐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수도 있다. 또 예상 매각가가 높아 분할 매각도 가능하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신약 개발 공들인 녹십자  
24개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현재 국내 제약회사 중에서 신약 개발에 가장 공들이고 있는 곳은 녹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최근 발간한 '한국 제약산업 연구개발 백서 2015'에 따르면 국내 40개 제약회사가 진행 중인 신약 및 개량신약 등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은 총 4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약 파이프라인은 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량신약 188건·바이오시밀러 22건·바이오메터 9건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녹십자가 총 24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종근당(22개)·SK케미칼(17개)·유한양행(15개)·동아에스티(14개)·한미약품(14개) 등의 순이었다.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 투자한 금액은 총 1조1640억4000만원으로, 파이프라인별로는 평균 40억8000만원에 달했다. 신약의 경우 평균 상업화 소요금액은 380억원으로, 개량신약(27억1000만원)과 바이오시밀러 등 기타 파이프라인(8억4000만원)에 비해 제약사들이 훨씬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개발 소요기간은 상업화에 성공한 신약의 경우 평균 9.1년, 개량신약은 3.1년이었다. 또 바이오시밀러는 5.5년, 원료의약품은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신약 연구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제약사들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투자부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경우 시장성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인호 기자 kangin@

# 남녀 평균연봉 7788만원 vs 7761만원 '대등' 근속연수는 여성이 2.5년 더 길어

##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 ⑤ KT&G

KT&G의 여성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남자직원에게 비해 월등히 높다. 2014년 말 현재 남자 직원이 16.2년인 데 비해 여성은 18.7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5년 더 길다.

매년 언론사나 증권거래소 등에서 조사하는 기업별 평균근속 연수에서 KT&G 여성직원의 근속 연수는 항상 상위이다. 지난 6월 잡코리아가 201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녀 직장인의 평균 근속 연수는 남성이 12.6년, 여성이 7.9년으로 나타나 KT&G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비교적 근속 연수가 높은 기업과의 차이도 크다. 자동차 계기판 등 콤팩트 모듈을 생산하는 덕양산업(17.2년), 한일이화(12.7년)보다도 높다. KT&G 관계자는 "특별히 여성이라고 배려하거나 더 많은 월급을 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회사가 여러 부분에서 남녀 평등적인 요소가 높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근속 연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남녀 직원의 급여 수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KT&G 여성직원의 평균연봉은 7761만원으로 남성평균인 7788만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여성 직원의 높은 근속연수 등과 비례해 연봉 면에서도 남성직원과 차이가 없는 것이며 국내 100대 기업 평균인 4933만원보다 약 1.6배나 높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등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 육아휴직제란 출산한 여직원의 출산휴가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제도로, KT&G는 일과 가정 양립을 실천하고,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대기업 중에는 롯데그룹과 KT&G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KT&G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준비해 올해 1월 27일 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



KT&G 서울본사 전경.

#### 해외근무 등 업무 남녀차별 없어

#### 출산휴가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 일가정 양립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제도를 시작했다. 자동육아휴직제의 대상이 되는 출산한 여직원은 출산 전후 휴가 사용 후 별도의 휴직 신청 과정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며,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만 기관별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KT&G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함께 진행하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T'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예정이다.

KT&G는 유독 부부사원이 많다. KT&G의 계열사 KGC 인삼공사에 부인이나 남편을 둔 직원이 많다. 대기업으로 치면 그룹 본사나 계열사 모두 양성평등이 완전히 정착돼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직원들의 평가다.

KT&G 김경희 과정은 "타기업의 경우 연봉이나 근무기회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G는 연봉 차이는 물론 해외근무 등 업무 기회 면에서도 남녀 차별이 없다. 또한 여성의에만 기관별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KT&G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함께 진행하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T'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

윤철규 기자 yoonck@



글로벌 주방 가전 브랜드 쿠진아트가 지난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베베 베이비 페어'에 참여, 아기 이 음식 조리에 활용할 있는 쿡 블렌더, 핸드 블렌더, 콤팩트 포트블렌더 등을 선보였다. 사진제공 쿠진아트

# 생활가전 “안심육아 ‘맘’ 잡아라”

국내 중소·중견 생활가전 업체들이 유아용품 박람회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쓰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자 마케팅 범위도 유아용품 시장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는 제품들을 내세우면서 부모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막내린 유아용품 박람회에 위닉스·휴롬·쿠진아트 등 14곳 참가 베이비페어 전체 기업 중 10% 차지 안전·건강 강화 생활가전 수요 ‘쑥’

정 및 제품·방진은 기본이고 아이용품의 소독과 정결, 안심 먹거리 제조와 수유, 건강 관리를 돕는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홍보됐다.

국내 제습기 1위업체 위닉스는 올해부터 베이비페어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가습·공기정정제품 라인을 대거 전시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 중국 오우린과 공동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는 공기정정기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휴롬도 대표제품 원액기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했다. 건강을 콘셉트로 하는 휴롬의 기업철학 소개는 물론, 휴롬주스 섭취의 중요성과 건강 효과를

알리는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또 산모와 아이들에게 맞는 주스 레시피 등 전문화된 콘텐츠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한일전기는 가습기, 이음식마스터기, 식품건조기 등을 전시했고, 선경산업은 젓병소독기, 갈도마소독기 등을 적극 홍보했다.

이같이 많은 생활가전 업체들이 베이비페어와 같은 유아용품 박람회에서 치열한 홍보전에 나서서 것은 그만큼 유아용품 시장이 더 이상 유모차, 카시트 등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출산을 저조로 부모들이 아이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커지면서 안전, 건강 요소를 강화한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유아용품 박람회 참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회복시키려는 국내 생활가전 업체들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며 “출산 장려 운동과 맞물려 유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가전업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 메르스 덕에...활력더한 ‘비타민제’

## 면역력 증진 중요성 확산...상반기 실적 호조

올 상반기 국내 제약회사의 주요 일반의약품(OTC)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비타민제 제품군은 실적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약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동제약의 대표제품이자 활성비타민제인 '아로나민' 류는 올 상반기 299억52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85억1800만원의 매출보다 252%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매출의 4.6%에 불과했던 아로나민 류는 올 상반기에 그 비중이 13.52%로 3배 가까이 늘었

다. 유한양행의 대표 영양제인 '빠빠씨'의 올 상반기 매출은 48억7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의 또다른 비타민제인 '비타민씨1000mg'도 올 상반기 44억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약 16%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실적 호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면역력 증진이 중요해지면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 제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일동제약의 활성비타민제인 '아로나민'류.

않으면 메르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었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르스가 올 상반기 국내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면역력 강화 및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메르스 예방 차원에서 주요 제약사들의 대표 비타민제를 많이 구매하는 것이 이같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ngin@



www.duzon.co.kr

# 스타트업부터 스마트하게

12만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회계프로그램의 표준이 되어 온 더존 Smart A.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그룹웨어, MS오피스 및 각종 IT자원 서비스까지 놀라운 혜택을 드립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필수 IT 아이템을 한번에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5년 IT노하우의 더존과 산뜻하게 스타트업하세요!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

1.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해당 프로그램 전용 그룹웨어 무상제공
2.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유로운 문서작업이 가능한 MS 오피스 무상제공
3.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IT자원과 관리 서비스 제공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현장을 가다

'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현장전망대

# 6800가구 동시공급... 기반시설 착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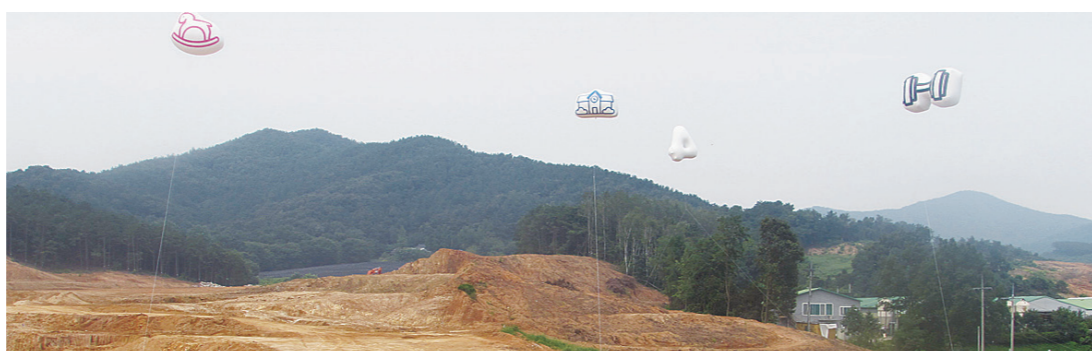
67개동 7400가구 규모 미니신도시급  
10월 분양... 수요자 미리 보고 느끼게  
단지내 750m 스트리트몰과 초·중·고  
스포츠센터 등 6개 테마파크 기대감

"단순히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민들을 위한 도시를 팔고 있다."

지난 23일 계절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다는  
절기인 '처서'였지만 뜨거운 여름 열기가 한창이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대에 위  
치한 '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현장전망대는 방문객  
들로 분양 열기가 뜨거웠다. 공급이 오는 10월로 예정  
돼 있지만 지난 7월부터 사업지에 현장 전망대를 설치  
하고 고객 모시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현장에는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대형 굴삭기  
와 덤프트럭의 현장을 찾는 승용차들의 행렬이 이어  
졌다. 현장에 도착하면 주차장 인근에 가상 스트리트  
몰이 설치돼 있었다. 이는 단지 내 조성되는 750m길이  
의 스트리트몰을 미리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특수 컨  
테이너를 이어 붙여서 베이커리, 카페, 편의점 등을 운  
영하고 있었다.

이후 대림산업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본격적  
이 현장 전망대 탐방에 나섰다. 현장전망대에 도착하자  
고객들은 단지홍보관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편한세  
상 용인 한숲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 공개되는 부지에는 각 동과 부대시설이 들  
어서는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숫자와 그림으로  
표시된 애드블론을 띄워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  
다. 이날 현장을 찾은 60대 남성은 "전망대에서 사업부  
지를 보니 방향도 쉽게 파악되고 이해가 더 빨리 된다"



'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현장전망대에는 대형 부스를 설치해 고객들이 단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부지 위에는 대형 애드블론을 띄워 각종 커뮤니티시설과 단지가 들어서는 곳을 표시해 이해를 돕고 있다. 사진제공 대림산업

면서 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브리핑(전망대)  
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이날 오후 내내 계속됐다.

'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70만3904㎡ 규모로 서  
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의 약 9.3배에 이르며 지하 2층  
-지상 29층, 67개 동, 총 7400가구의 신도시급 대단지다.  
이 중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6800가구가 일반에 공급  
된다. 전용 84㎡이하의 중소형 평면이 대부분을 차지한  
다. 또한 이곳에는 아파트 외에도 시립유치원 및 초·중  
학교 2개와 중·고교가 1개씩 들어선다. 아울러 단지내  
에 스트리트몰과 함께 대형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6개  
테마로 이뤄진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대림산업은 이 사업지가 용인시에 있지만 차량이용

시 동탄2신도시와도 가까워 인근지역 수요층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균 분양가는 3.3㎡ 850만원대  
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니신도시급의 단지를 동시에 분양하는 데  
대해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학교와 스트리트몰, 6개 테  
마파크 등의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돼 수요층을 한 번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대림산업 측은 내다봤다.

단지 분양을 담당할 박종복 도우씨엔디 부사장은  
"일반분양 물량 6800가구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은 그  
동안 신도시 사업들이 겪었던 입주초기 기반시설 미  
비로 인한 불편함, 분양가 인상 우려 등의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지난 22일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 아흐메트 다부토올루 총리 등 터키 정부 및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라시아 해저터널 관통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SK건설

## SK건설,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관통

유럽-아 보스포루스 해협 3.34km  
2017년 3월 왕복 4차선 복층 준공

SK건설은 22일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 아  
흐메트 다부토올루 총리 등 터키 정부 및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라시아 해저터널  
관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4월 골착에 착수해 하루  
평균 25톤 트럭 100대 분량의 토사를 퍼 올리  
며 7m씩 굴진했다. 이후 16개월 만에 이스탄불  
앞바다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  
루스 해협 관통을 이뤘다.

유라시아 해저터널은 접속도로를 포함해 총  
연장 14.6km로 이 중 보스포루스 해협 3.34km  
해저구간을 TBM(터널굴착장비, Tunnel  
Boring Machine)으로 관통했다.

이 공사는 최고 수심 110m 해저가 모래, 자  
갈, 점토가 뒤섞여 쌓여 무른 층층으로 이뤄  
진데다 대기압 11배에 달하는 높은 수압으로  
자칫 바닷물과 토사가 터널 안으로 유입될 위  
험이 높은 고난이도 공사였다고 SK건설 관계  
자는 설명했다.

SK건설은 오는 2017년 3월까지 왕복 4차선  
복층 유라시아 터널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전망  
했다. 정경진 기자 jungji@

## 남양주 최대규모 오피스텔 '가운지구 리슈빌S' 296실

계룡건설그룹 KR산업이 지난 21일에 견본  
주택을 오픈하고 구리와 남양주시 일대 최대규  
모의 브랜드 오피스텔 '가운지구 리슈빌S'의 분  
양에 돌입했다.

가운지구 리슈빌S는 남양주시 가운지구(가  
운동 668-2번지) 도농사거리 인근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며 전용면적 기준 20  
㎡A타입 184실, 20㎡B타입 102실, 42㎡ 10실 등



총 296실로 구성된다. '가운지구 리슈빌S'은 임  
대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면 설계를 적용했  
다. 저층의 경우 임대 선호도가 높은 복층형으  
로 구성됐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형 등 차  
별화된 타입 구성이 눈길을 끈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남양주시 가운동 668-3  
번지 1층에 위치해 있고 입주는 2017년 4월 예  
정이다. 구성원 기자 carlove@



백조의 몸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서는 소녀의 아름다운 변신처럼,  
백화점 위의 백화점으로 the HYUNDAI 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트렌드를 리딩하는 글로벌 핫플레이스부터 세계적인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최초로 소개하는 이탈리아, 사라베스를 포함하여 900여 매장, 2만여개 브랜드가 모였습니다.  
세계 미식가들이 주목하는 최고의 식품관과 어린이 책 미술관 MOKA,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으로 완성되는 압도적인 공간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새로운 모든 것의 시작.

## 2015. 8. 21 Grand Open 현대백화점 판교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백현동), 판교C1분거리/신분당신 판교역 3번출구  
| 영업시간 월-목 10:30~20:00, 금-일 10:30~20:30 | 문의전화 031-5170-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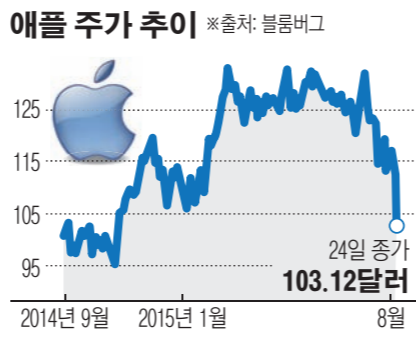


# “애플의 中시장 성장세 굳건하다” ‘주가방어’ 공개서신 보낸 팀 쿡

“아이폰 판매 호조... 앱스토어 실적도 최고치 기록”  
24일 시장 불안 잠재우며 주가 폭락세 ‘브레이크’  
중국發 증시 쇼크에 한달간 시총 180조원 증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이례적으로 공개 이메일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회사의 성장세가 굳건하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의 주가는 24일(현지시간) 글로벌 증시 ‘블랙데일’에 휘말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다가 쿡 CEO의 한 마디에 나뒀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장 초반 13%까지 폭락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쿡 CEO가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의 주시 프로그램 ‘매드 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서 시장의 불안이 줄었다. 애플의 주가는 장 초반 전 거래일보다 1.2% 정도 올랐다.  
쿡 CEO는 이메일에서 “아이폰은 최근 수 주간 중국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고 중국 내 앱스토어 실적도 지난 2주간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전례가 없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아침도 그랬지만 우리의 중국 성과에 대해 매일 나쁜 소식을 듣고 있다”며 “지난 7-8월 애플은 중국에서 강력한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번 분기 현재까지의 실적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팀 쿡이 이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가까운 갈수록 중국시장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경기둔화 불안으로 중국증시가 속대밭이 되면서 애플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애플 주가는 한달새 20% 이상 하락해 시가총액이 약 1500억 달러(약 180조원) 증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애플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0%에 달해 중국시장이 침체하면 애플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쿡 CEO가 중국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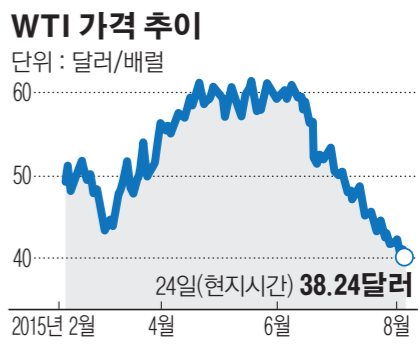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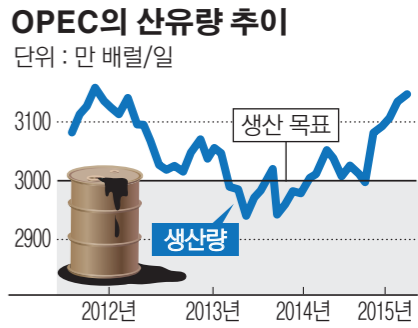
우려를 잠재우려고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7월 실적 발표 당시에도 “나는 중국에 매우 낙관적”이라며 “최근 증시 변동은 단지 과속방지턱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역설했다. 이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중국 가계 전체로 따져 보면 여전히 낮은 비율”이라며 “주가하락이 중국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FBR앤드컴퍼니의 대니얼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애플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면서 “애플은 앞으로 출시할 아이폰6S와 앞으로 3년간 중국에서 100억 달러(약 120조원)에 이르는 시장 기회를 갖고 있다”며 “이날 오전의 헤리케인과 같은 하강 기류 속에 살 만한 고유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쿡 CEO의 주가 방어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실패했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2.5% 하락한 103.1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국제유가 30달러대 임박 ‘OPEC 카르텔’ 붕괴하나

저유가 장기화에 회원국 재정난  
최대 산유국 사우디 감산 거부  
알제리 등 OPEC에 대책 촉구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굳건했던 카르텔에도 균열이 일 조짐이다. 시장 점유율 유지에 급급해 저유가 대책을 등한시하는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부 재정위국이 반발하면서 불협화음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국제유가(WTI 기준)는 전일 대비 5.5% 폭락해 배럴당 38.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6년6개월 만에 최저치다.

현재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과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탓에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사우디, 이란,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은 원유 생산량을 계속 늘리며 시장 점유율 경쟁에 급급하다. 이로 인해 시장 내 수급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OPEC 회원국들의 재정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저유가, 예멘 공습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6월 기준 6720억 달러(약 795조원)이 낮아져 이달 초 8년 만에 50억 달러 규모의 국제채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우디는 저유가의 근본적인 원인인 감산은 거부하고 있다.  
OPEC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OPEC 12개 회원국의 하루 평균 산유량은 목표치보다 많은 3000만 배럴에 달했다. 특히 지난 7월의 OPEC 회원국 산유량은 하루 평균 3150만 배럴로 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6년 OPEC 산 원유 수요는 308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200만 배럴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사우디보다 재정난이 심각한 OPEC 회원국들은 저유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알제리 헤리케인 사태로 OPEC 사우디에 제한을 보낸 지난 6월 OPEC 회의에서 산유량을 동결(감산 거부)한 이후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OPEC이 이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12월 3일 개최될 예정인 정례회의 전 긴급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OPEC은 알제리의 이런 요청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RBC 캐피탈마켓의 상품전략책임자인 헤리마 크로프트는 “재정위기를 맞은 리비아, 알제리,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5개 회원국이 OPEC에 반발함에 따라 지정학적 불안함이 커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선에 바짝 다가선 상황. 씨티글로벌의 상품리서치 부문 책임자인 에드 무어스는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선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가 않다”며 “현재로서는 상승시킬 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해인 기자 haein2558@

# ‘브랜드 통합’ 나선 글로벌 담배업계

간결한 사업 구조로 생산성 ↑



# 獨·佛, 이번엔 난민 해결사

베를린서 정상회담... “EU 차원의 난민 대책 마련해야”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글로벌 담배업계가 브랜드 통합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영국계 다국적 담배기업인 임페리얼 타바코 그룹,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 등은 최근 유사한 맛과 색깔, 여기에 가격까지 비슷한 담배를 출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니르말라 쿠마르 교수는 “글로벌 담배 업체들은 많은 브랜드 소유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기업에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쿠마르 교수는 “현재 그들(담배업체)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리를 재배치하고 많은 중복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브랜드 통합 및 이동은 소비재 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브랜드 고객이 이동하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과정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셀린, 비누 등 유지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다국적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의 경우, 세계적 브랜드인 레디언의 향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대체 브랜드인 서프에 레디언 향을 첨가한 ‘서프 프레쉬’를 선보여 레디언 고객들을 대체 브랜드로 이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즉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보다 고객들의 혼돈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제품과 새로운 것을 혼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엔 난민 해결사로 나섰다.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유럽연합(EU) 차원의 난민 문제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정상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등록센터를 세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지금 우리는 유럽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환경을 맞았고,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며 “기다리기보다는 날마다 대응하면서 대책을 만들고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주말 드레스덴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반이민 극우 폭력시위에 대해 “충격적인 모습이었다”고 언급하며, 공격적인 증오감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이처럼 난민 해결에 발벗고 나선 배경은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이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트엑스는 7월 한 달간 유럽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이 10만 75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4만명으로 지난해 연인 수치의 28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그리스로 들어간 난민이 1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 이달 초 리비아 근해에서 600여명의 난민이 타고 있던 선박이 전복돼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난민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제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난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10월 중순 유럽 지역 각국 내무·외무장관들이 모여 난민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EU는 11월 몰타에서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도 참석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어 난민 문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은 최근 보도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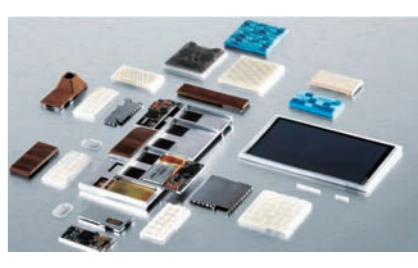
휴가 마친 오바마, 웃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카메라를 향해 밝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며 보고 있다. 17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부터 격무를 소화해야 한다. 이날 미 재무부는 중국시장을 포함 세계금융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에 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별도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8%대 폭락장을 연출한 데 이어 뉴욕 다우지수도 1만6000선이 붕괴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 구글 ‘아라 프로젝트’에 아마존 최고기술자 영입

조립식 스마트폰 내년 출시



구글이 조립식 스마트폰을 지향하며 추진하고 있는 ‘아라 프로젝트’에 최근 아마존의 최고 기술자를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마존에서 하드웨어 디바이스 분야 최고 기술자였던 존 매크맥이 구글로 이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크맥은 구글에서 아라 프로젝트의 스마트폰 모듈과 손 센서칩을 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연구하는 부서에 몸을 담게 됐다.  
매크맥은 아마존이 스마트폰 ‘파이어’ 흥행에 실패한 이후 세운 하드웨어 개발 연구소 ‘랩 126’에서 6년 동안 근무했다. 아마존의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 개발에도 참여했을 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글이 아라 프로젝트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아라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액정 화면, 배터리 등 스마트폰 부품을 직접 조립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구글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아라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부품 간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전자영구자석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결국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구글은 제품의 조립식 유형에 맞게 부품을 교체할 때 자력을 방출하지 않고 부착 상태에서는 다시 자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영구자석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드롭테스트에서 전자영구자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부품이 분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WSJ는 “매크맥의 이직과 관련해 당사는 물론 아마존 측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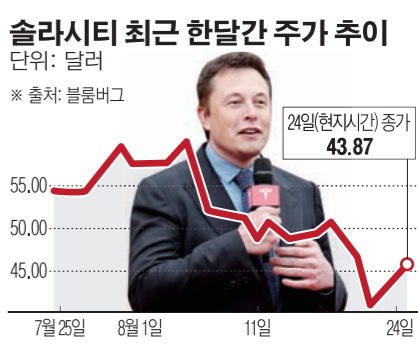
# 자사주 사는 엘론 머스크

‘솔라시티’ 주가 하락 방어  
주식 12만3510주 사들여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태양에너지 제공 업체 ‘솔라시티’의 구원투수로 직접 나섰다.  
머스크는 24일(현지시간) 500만 달러(약 60억원)어치에 달하는 솔라시티 주식 12만3510주(주당 40.4855달러)를 사들였다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증시가 중국발 쇼크로 폭락한 가운데 최근 침체에 빠진 솔라시티의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부양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다. 머스크가 솔라시티 매입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 21일 솔라시티의 주가가 전일대비 약 13% 폭락한 40.99달러까지 떨어진 영향이 컸다. 40달러선에 겨우 턱걸이한 솔라시티의 이날 주가는 2013년 1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다 2013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최악의 수치였다. 이후 헤지펀드 매니저인 짐 채노스도 “주가 급락을 회복할 만한 (솔라시티의) 동력

이 부족하다”고 분석하자 이 회사의 회장인 머스크가 직접 나선 것이다.  
채노스는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솔라시티의 금융수준이 ‘서브프라임(비우량)’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솔라시티의 린든 라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솔라시티의 평균신용점수는 750으로, 위험으로 간주되는 640보다 훨씬 높다”고 반박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기업은 사람이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 故 이병철·정주영 회장 우표 나온다

우정본부 ‘현대 한국인물’

경제발전 공로 2인 선정 발행

내일 선착순 100명 무료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26일부터 ‘현대 한국인물 시리즈’ 세 번째 우표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과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을 소재로 한 우표를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정본부는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경제 분야 인물 12인을 대상으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높이 평가받은 두 인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정본부는 “특히 올해는 정주영 전 회장이 출생한 지 100년, 이병철 전 회장이 출생한 지 105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총 100만장으로 두 경제인의 생전 모습과 함께 정 전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전 회장의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각자의 철학을 문구로 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26일 발행하는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과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우표.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총 100만 장으로 두 경제인의 생전 모습과 함께 이병철 회장의 ‘기업은 사람이다’ 정주영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기업인으로서의 철학을 문구로 담았다.

조선·자동차 산업에서 높은 개척 정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했다. 1998년 6월 16일 판문점을 통해 북 ‘통일소라’고 불린 소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넘는 이벤트를 연출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더 방북하며 남북 민간교류의 획기적 계기가 된 ‘금강산관광’을 성사시켰다.

정 전 회장은 제1회 한국경영대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IOC훈장, 노르웨이 왕실훈장 등을 수상했고, 타임지 선정 ‘아시아를 빛낸 6인의 경제인’ 등에 선정됐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 전 회장은 과감

한 반도체 투자 등으로 정보기술(IT) 분야의 발전 기를 마련해 국가 경제성과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1953년부터 창업자본에서 탈피해 제조업에 투자함으로써 산업자본화의 물꼬를 텄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삼성물산을 비롯해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등을 설립하며 삼성그룹의 기반을 닦았다.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설립해 전자제품 수출에 성공을 거두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 한국경제인 협회를 창설해 초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올

산 공업 단지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금탑 산업 훈장을 수상하고 1979년 미국 베스대학에서 주는 세계 최고 경영인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전 회장의 업적을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우정본부는 이번 우표발행을 홍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표발행 경과, 우표디자인 사인 등 우표발행 행사를 개최하고, 선착순 100명에게 우표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양창규 기자 yangck@

##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프로야구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오늘 목동구장서 시구·시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프로야구 경기의 시구·시타자로 마운드에 오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릴 넥 히어로즈와 KT위즈의 경기에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3기 소속의 장애·비장애 아동 2명이 시구·시타자로 선정됐다.

이 행사에는 발달장애 3급인 양혜민(12) 어린이와 비장애 아동인 박서은(11) 어린이가 함께한다. 이들은 구단 유니폼에 발레 치마를 더한 ‘발레리나의 모습으로 마운드에 오른다.

비장애아동 박서은 어린이(11세)는 “발레단 연습할 때 좋은 친구가 생겨서 좋았는데, 이렇게 같이 야구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앞으로도 헤미넨니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은 보건복지부와 서울발레시어터(단장 김인희)가 함께 운영



매주 토요일 발레수업을 받고 있는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3기 소속 장애·비장애 아동들.

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발레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창단된 어린이 발레단으로 지난 2013년부터 복지부와 서

울발레시어터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아동 17명, 비장애 아동 23명 등 총 40명이 매주 토요일 발레수업을 받고 있다.

김부미 기자 boom@

## 인사

◆기획재정부 △총괄정책과장 김병환 △자금시장과장 주환욱 △정책기획과장 김진병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외교부 전출 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입 박재현

◆수원시 △4급 승진 △팔달구보건소장 이희욱 △관선구보건소장 박정애 △4급 전보 △장안구보건소장 김해경 △5급 승진 △영통구 조인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최상규 △팔달구 강은애 △관선구 이현숙 △장안구 김시현 △관선구 이규성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권기준 △관선구 박봉식 △5급 전보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김용덕 △기획조정실 시민봉사과장 이태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의회사무국 녹지교통전진지원팀 최광근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장 김종일 △영통구 이호철 △전라사업국 창조사업과장 이재면 △도시정책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대호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장 임인수 △환경국 하수관리과장 김철우 △전략사업국 균형개발과장 조영호 △6급 전보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김충환 △감사관 감사팀장유원중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기획팀장 김기서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 이상희 △문화교육국 관광과 정재림 △장안구 김만준 △북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김일기 △감사관 인권팀장 안효상 △영통구 안재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의회협력팀장 윤관영 △관선구 김성일 △문화교육국 관광과 김수정 △북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원정재 △차량

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장 장경화 △북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재현 △관선구 김기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 시설과 보물관리팀장 양영석 △서울사무소 이기조 △장안구 최원학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노사문화팀장 송대선 △관선구 이광열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김석동 △팔달구 박도준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영균 △장안구 박현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장 백중현 △체납세징수단 체납세징수팀장 최석원 △일자리경제국 세정과 세무조사팀장 조병준 △북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장인영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위생처리팀장 이동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 생산과 시험1팀장 이태현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첨단산업팀장 박은준 △팔달구 최주환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하수처리1팀장 조용근 △일자리경제국 생산산업과 농업정책팀장 김병선 △관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의약품팀장 전현택 △관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장 백대현 △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구교영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이미선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장 김순애 △환경국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장 김우식 △영통구 조근희 △전략사업국 창조사업과 융복합팀장 김대관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장 최광근 △팔달구 신창훈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 맹한영 △안전교통국 도로과 도로건설팀장 유선형 △환경국 하수관리과 하수시설팀장 박은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수도시설팀장 우제박 △안전교통국 재난관리과 자연재난팀장 김기환 △농업기술센터 인

력육성팀장 노병진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장 정순아 △상수도사업소 한천회 △상수도사업소 박장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고기탁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순정 △북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윤상숙 △장안구 한태영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이용태 △환경국 하수관리과 이지호 △안전교통국 안전정책과 박남숙 △안전교통국 도로과 오영립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구연주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홍금중 △장안구 유석기 △일자리경제국 생명산업과 신중철 △장안구 이민희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장명희 △도시정책실 공공항이전과 송다겸 △기술국 자원순환과 김신영 △문화교육국 미술관운영 추진단 황인철 △영통구 황승하

◆충북도교육청 △3급 승진 △중양도서관장 김홍권 △4급 승진 △단체교육연수원 박중수 △5급 전보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이영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리 이재순 △예술진흥본부장 직무대리 류재수 △문화나눔본부장 박두현 △운영총괄본부장 양효석 △정책평가부장 이윤희 △경영인사부장 강병주 △창작지원본부장 양한성 △아트코 예술인력개발원장 이한신 △문화복지부장 김지훈 △문화누리부장 장용석 △문화예술후원센터장 김한구 △공공운영본부장 정철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승진) △이사급 △계약 영업부 김기성 △백신 영업부 비규남 △HIV 사업부 권희진 △법무팀 오수정 △도매유통팀 박동순 △본부장급 △대의협력팀 김정식 △영업기획팀 박진경

◆GSK 컨슈머헬스케어 △이사급 △영업부 윤정진 △본부장급 △영업부 최용복

△재무부 하태석

◆브릿지경제 △온라인뉴스부장 김성욱 △편집국 금융증권부장 이승재

◆아시아타임즈 △국장대우 △산업부장 안종일 △부국장 △건설부동산부장 최환급

## 부음

▲황진하(새누리당 사무총장)·정하(유니크 대표이사)씨 모친상 = 24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31-940-9100

▲최영현(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씨 부친상 = 23일, 분당서우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31-787-1510

▲권상희(성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씨 장모상 = 24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10분, 02-923-4442

▲정재모(전 경남도보 편집실장)·현도(부산 대연고 교사)·재구(해성디에스 상무)씨 모친상 = 24일,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55-750-8652

▲박성욱(국가유공자)씨 별세, 경림(전한전 근무)·경덕(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연구원)씨 부친상 = 23일, 울산영락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52-275-1822

▲홍성준(전 새누리당 부대변인)·혜선(강원대 근무)씨 모친상, 임동원(대인보우 이사)씨 시모상, 권순배(강원도 농업기술원 근무)씨 장모상 = 24일, 강원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33-258-9402

▲김용균(쌍용건설 홍보팀 차장)씨 장인상 = 24일, 일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30분, 031-900-0444

## 리디아 고 ‘약속의 땅’서 시즌 3승

LPGA 캐나다 퍼시픽오픈

루이스와 연장 승부 끝 우승

박인비와 랭킹 포인트 1.87점 차

최근 상승세 ‘여제 경쟁’ 재시동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가 24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총상금 225만 달러, 약 26억5000만원)에서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쳐 스테이시 루이스(30-미국)와 연장전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리디아 고는 이 대회 3번째 우승이자 올 시즌 3승째를 장식하며 LPGA투어 통산 8승(아마추어 포함)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27-KB금융그룹)와의 랭킹 포인트도 3.06점에서 1.87점

가 ‘약속의 땅’ 캐나다에서 활짝 웃었다.

리디아 고는 24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골프클럽(파72-6656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총상금 225만 달러, 약 26억5000만원)에서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쳐 스테이시 루이스(30-미국)와 연장전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리디아 고는 이 대회 3번째 우승이자 올 시즌 3승째를 장식하며 LPGA투어 통산 8승(아마추어 포함)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27-KB금융그룹)와의 랭킹 포인트도 3.06점에서 1.87점

로 좁혔다. 올해 2월 2일 최연소(17세 9개월 7일) 세계랭킹 1위 자리에 오른 리디아 고는 ISPS 한디 호주여자오픈을 비롯해 6대회 연속 ‘톱10’에 진입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 고용정보원,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취업나침반’

구직자·기업 일자리 문제 해소

한국고용정보원이 ‘제15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IT 시스템과 서비스를 수요자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 기관과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고용정보원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등 국가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구직자와 기업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일자리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워크넷은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 연계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상반기에는 정부3.0 취지에 맞춘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취업나침반’을 구직자들에게 선보였다.

김부미 기자 boom@

## 한화투자증권, 양평 ‘성요셉의 집’ 봉사활동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2일 경기도 양평군 조현리 소재 성요셉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화투자증권 임직원과 가족들 60여 명의 봉사자들은 연일 수확과 연일 말리기 등의 농촌일손 돕기 및 시설 청소를 도왔다.

성요셉의 집은 현재 약 40여명의 무의탁 노인이 요양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999년 천주교 노인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은 이래 약 17년간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임직원들은 매년 봄, 가을에 모란 정리, 농작물 수확 등 번거로운 일을 돕고 경로잔치와 효도관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명절에는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담아 전자제품과 이불, 쌀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화투자증권 직원과 가족들이 지난 22일 경기도 양평군 조현리에 위치한 성요셉의 집 봉사활동에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투자증권

## KCC·환경부,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KCC가 환경부와 손잡고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KCC는 지난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바닥재 ‘솔그린 경보행’ 제품 100톤(2000만원 상당) 가량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약 2000가구 대상으로 실내 공기오염 6개 항목(TVOC, 폼알데하이드, 집먼지진드기, 곰팡이)을 무상으로 진단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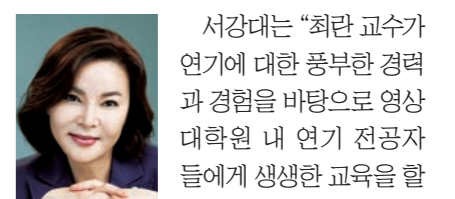
KCC 관계자가 환경부와 체결한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협약서를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KCC

배우 최란, 서강대 강단 선다

연예인 첫 임용... ‘연기세미나’ 강의

멜란트 최란(사진)이 서강대 강단에 선다. 최란은 25일 “최란을 영상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연예인로서는 처음으로 서강대 교수에 임용된 최란은 내달 1일부터 ‘연기세미나’ 과목을 강의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신철호 닥프렌즈 대표

임철순 칼럼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 ‘서울의 오만한 과묵’을 고대하며

(2003년)에는 이스탄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책은 “풍경의 아름다움은 그 슬픔에 있다”는 터키 작가 아흐메트 라심(1864-1932)의 말로 시작된다. 과묵이 이스탄불을 좋아하는 것은 “복잡하고 불완전하며 폐허가 된 건물들의 더미이기 때문이다.”

‘이스탄불’의 주재어는 비애다. 과묵은 1850년부터 2000년까지 150년간 이스탄불을 지배하고 도시에 널리 퍼진 감정은 비애라고 썼다. 슬픔, 비탄, 침울, 우울로 바꿔 말할 수 있는 정서다. 그런 도시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기록해 보존하는 것이다. 그의 문학 활동은 이스탄불의 소멸에 대한 저항이다.

앞에서 인용한 오만한 웰리 카누의 시 ‘이스탄불의 노래’에도 슬픔이 나온다. ‘저는 이스탄불 보아지치(보스포루스 해협)에 사는/가난한 사람 오만한 웰리입니다/설명할 길 없는 슬픔 속에 있는/웰리 집안의 아들입니다.’ 시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은 말로 돼 있다.

보름 전, 유라시아문화포럼(이사장 홍태식)의 한-터키 하계 국제 문학인대회를 주관할 겸 휴가차 찾았던 이스탄불은 과연 공존과 폐허의 도시이면서 비애의 도시로 보였다. 과묵이 여름보다 더 좋아한다는 눈 덮인 겨울은 보지 못했지만, 독일 작가 인톤 쉬니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상으로 깊게 니열한 감성적 풍경은 충분히 공감할 만했다. 그는 “이스탄불이 비애의 도시라는 말을 듣는 것이 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걸까? 왜 나는 나의 도시가 준 감정이 비애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라고 썼다. 그의 말대로 도시의 운명도 사람의 성격이 된다.

10년 전 한국을 다녀간 직후, 그는 사바흐라는 터키 신문에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때요?’라는 글을 썼다. 그가 글에서 언급한 것은 토요일 오후 사람들로 꽉 찬 격납고처럼 넓은 서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휘황찬란한 건물들과 호텔 로비들, 아찔할 정도의 부유함과 경제 성장, 그리고 북한의 위협 따위였다. 이모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바 있어 그는 어려서부터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다.

이스탄불을 둘러보면 서울과, 서울의 작가들을 생각했다. 이스탄불이 비애의 도시라면 서울은 어떤 도시인가? 이스탄불엔 폐허가 있다. 서울엔 폐허가 없다. 폐허는 삶의 치열함과 인간의 존엄, 그리고 역사를 가르쳐준다. 우리는 폐허를 남겨 놓지 않았다. 그 위에 아찔할 정도의 부를 세우기 위해 전력해 왔다. 지금 서울은 폐허도 없는 부화(浮華)와 환락의 도시 아닌가?

1920년 김억, 염상섭 등이 발행한 문예동인지에 ‘폐허’가 있었다. 독일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의 ‘옛것은 별하고 시대는 변했다./새 생명은 폐허로부터 온다’는 시구에서 따온 제목이다. 폐허의 폐허의 폐허 속에서 새 생명을 찾아야 한다.

오만한 과묵을 더 인용하면 일상생활은 고귀한 것이며 일상의 물건은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불행이란 자신과 도시를 혐오하는 것이다. ‘서울의 순수박물관’, ‘서울의 오만한 과묵’을 고대한다.

1920년 김억, 염상섭 등이 발행한 문예동인지에 ‘폐허’가 있었다. 독일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의 ‘옛것은 별하고 시대는 변했다./새 생명은 폐허로부터 온다’는 시구에서 따온 제목이다. 폐허의 폐허의 폐허 속에서 새 생명을 찾아야 한다.

오만한 과묵을 더 인용하면 일상생활은 고귀한 것이며 일상의 물건은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불행이란 자신과 도시를 혐오하는 것이다. ‘서울의 순수박물관’, ‘서울의 오만한 과묵’을 고대한다.

## 스타트업 의사결정 기준은

“7명 반대, 3명 찬성이나 합병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흔히 접하는 다수결 또는 만장일치의 방식은 핵심을 간파할 때가 많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모른 채, 수적 우위가 결과를 매듭짓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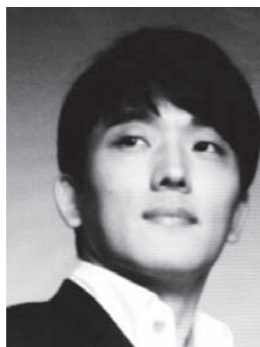
변수는 다양하다. 때때로 7명 중 조직 영향력이 강한 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따라가기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주도한 사람이 싫어서 반대할 수도 있다. 손해가 예상되는 개인적 이해관계, 그리고 단순 선호를 반영하는 우애감은 물론, 대중을 장악해버리는 소수에 휘말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3명 이상의 구성원이 내뿜는 정치는 ‘민주주의’ 개념을 오용·과용하며 확산되기도 하는데, 이는 곧 ‘다수결, 만장일치’ 맹신으로 흐를 수 있다. 남는 것은 머릿수뿐이고, ‘왜’ 우리가 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은 사라질 때가 많다.

체계 없는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한두 명이 우두머리가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동의해야 한다는 다수결 맹신에 빠져 있는 경우다. 이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구성원의 직위나 의사결정의 형식이 아닌 우리 조직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부합되는지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다.

함께 만든 기업이라는 의미 아래 우리가 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A라인·B라인 등의 사람을 따라가는 출세기 현상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소수와 다수의 수적 기준이 아닌 우리가 그 일을 시작했던 이유를 한가운데 두고 토론을 시작하면, 한 사람의 올바른 판단이 아홉의 그릇 그것을 물리칠 힘을 얻을 수도 있다.

4년의 선거 주기, 1인 1투표제가



절대선이 아니듯이 조직의 대표가 밀어붙이는 식의 의사결정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망한 권력은 사그라지기 마련이다. 오로지 구성원들 다수가 ‘왜’ 이 서비스를 하는지 공감하고 있을 때, 그 판단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많은 창업자들이 돈만 벌자고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지는 않는다. 가치 있는 일을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 목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는 기회에서 돈을 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람을 기준 두기보다는 늘 목적을 앞세워야 한다. 기업 내 모든 행위의 정당성은 창업자들이 모이고 사업을 시작한 목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창업을 한 이유, 또 론칭한 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다른 화두가 머릿속을 채워 버리게 된다. 심지어 업무의 우선순위, 사업 예산은 물론 사람 자원의 결정, 사업계획, 개발의 UI(사용자 환경)-디자인가이드, 마케팅 수행 목록 등을 정리할 때조차 이것을 떠올려야 한다. 이 모든 업무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일이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커다란 목적을 간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할 권한을 가진다. 권력과 지분이 아닌 오로지 그 기업의 목적 앞에서 말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생각 8월 25일 周而不比(주이불비) 널리 친하지만 편당을 짓지 않는다

“군자는 알기는 쉽지만 친해지기 어렵고, 두려워하게 하기는 쉽지만 협박하기 어렵다.” ‘순자’ 불구(不苟)편 2장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은 ‘君子易知而難辨 易懼而難侮’인데, 앞(狎)이라는 글자는 익숙하다, 친하다. 앞(狎)이라는 글자는 익숙하다, 친하다. 앞(狎)이라는 글자는 익숙하다, 친하다. 앞(狎)이라는 글자는 익숙하다, 친하다.

그릇된 일은 하지 않는다. 사귀어 친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편당(偏黨)을 이루지 않고 말은 잘하지만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畏患而不避義死 欲利而不爲所非 交親而不比 言辯而不辭 蕩蕩乎 其有以殊於世也]

만 잘 사귀거나 친한 것을 말한다. 탕탕(蕩蕩)은 넓고 아득한 모양이다. 마음이 유연해서 사사롭거나 사악한 게 없는 마음을 형용할 때도 탕탕하다고 한다. 공자가 논어 태백(泰伯)편에서 요(堯)임금의 덕을 찬탄하는 말에 탕탕이 나온다. “넓고 넓어서 백성들이 능히 이를 지어 형용할 수 없었다.” [蕩蕩乎 民無能名焉]

온라인 와글와글

### 가정폭력 1년세 두배 켜중...집마다 CCTV 달아야 하나?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2만1381건, 검거 인원은 2만45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검거 건수는 일평균 1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1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네티즌 사이에선 “경찰에 신고해도 집안 문제는 알아서 해결시켜야 하죠라면서 가버리는 게 현실이다”, “가정마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하나? 피해자 신고 외엔 도움 줄 방법이 없으니”, “가정폭력은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죠”, “부모가 주먹 휘두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뭘 배울까? 가정이 최우선 교육기관이나 다름없는데 말아야”, “부모들이 사소한 갈등으로 다들 때때다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데”,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가정이 무너지는구나”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오늘의 바에 바에 바에 www.baekn.com

제2의 카라! 에이프릴 쇼케이스

‘제2의 카라’로 불리는 에이프릴(소민·진솔·나은·채원·예나·현주)이 성공적인 데뷔 쇼케이스를 치렀다. 에이프릴은 24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Dreaming(드림링)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꿈사탕’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매력을 발산했다. 이날 에이프릴은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이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려니 떨리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도 든다”며 “정신도 없고 긴장도 되지만 예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제2의 카라’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질문에 에이프릴은 “부담감으로 느끼기 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 선배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RAYCOOK GOLF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함인희 칼럼



이화여대 교수

이산가족 상봉,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남한 땅에 홀로 내려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가를 이루신 아버지께서는 KBS의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 온 국민을 눈물바다에 빠트리던 즈음, 예기치 않게 당신 이모님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셨다. 내겐 이모할머니가 되시는 분께서 나를 보자마자 "우리 언니 똑 닮았네" 하시던 표정이 지금도 잊힐 않는다.

아버지는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시절, 온 가족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결코 떠나서지 않으셨다. 당신 고향인 강서 땅을 밟을 수 없을 바엔 금강산이나 설악산이나 마찬가지로 한사코 가족들 권유를 뿌리치셨다. 그랬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년여 전부터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다. 행여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날 수 있으려나, 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을 굳이 감추지 않으셨고, 금강산이라도 올라가 고향땅을 바라보길래도 했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다. 혼자선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1년여 투병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고작 열일곱 나이에 두고 온 가족들을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분단의 비극과 전쟁의 참상을 헤쳐 온 우리에게 이 정도 한(恨) 맺힌 이야기쯤이야 그리 새삼스러울 건 없다. 하지만 유달리 강한 가족주의를 전통으로 간직해온 우리네가 분단 70년에 이르러까지 이로록 오랜 세월을 이산(離散)의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겠는지. 우리는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인도주의

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지속시켜 가야 한다고 북한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작업과 이산가족 상봉을 분리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이야말로 그 어떤 교류보다 정치성이 강한 이벤트를 정확하게 간파한 탓일 게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주인공이 피란 당시 잡고 있던 손목을 놓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여동생을 수십 년 만에 다시 찾게 되는 감격스런 장면이 나온다. 영화는 영화인지라 딸은 엄마 만나 한복을 곁에 차려 입고 절을 올리고, 물라보게 달라진 모습의 남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해후의 기쁨을 나눈다.

사실 필자는 영화에서는 들려주지 않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 바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가 온 것 같다. 물론 이산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낸 1세대가 점차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결코 미루어선 안 될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봉 이후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것 또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일 것이다. "차라리 만나지 않으면 못됐다"는 솔직한 고백 속엔 더 이상 낭만화할 수만은 없는 이산가족 상봉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놓쳐서야 되겠는가.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사회팀장

분위기 파악 못하는 지자체

최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촉발된 남북 대치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고위급 접촉이 '무박 4일'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타결로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내심 안도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적응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과 북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적대국의 시선이 아닌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타결에 앞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을 무렵,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일부 자치단체 행동이 온·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이 긴급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통해 북한은 준전시 상태에 돌입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를 요구한 시한인 지난 22일 한미 공군 전투기 8대가 한반도 남쪽 상공을 비행하는,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시점 등을 협의, 북한의 도발의지를 억제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최악의 상황(전면전)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북한 국경과 인접한 과주와 연천, 강원도 화천 주민들은 상황이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이 언제, 어디서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현 상태를 지켜 보고 있는 과주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좌불안석(坐不安席), 그 자체로도 괴로운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포시와 시흥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과 북의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과는 거리가 먼 행사를 주최한 것이다.



자치단체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에 구래동 호수공원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호수공원 개장을 축하하는 '호수엔락' 축제와 함께 마지막 순서로 화려한 불꽃놀이를 마련했다. 당시 5분간 불꽃놀이가 진행되면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김포시 지역을 뒤덮자 시청과 김포경찰서에는 북한의 포격이 감행된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시흥시는 배곡 신도시에서 음악회를 끝낸 후 약 15분간 불꽃 축제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열린 불꽃축제에 의해 시흥시와 안산시 주민들은 북한이 또다시 무력 도발을 한 건 아닌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한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행사를 후원한 시흥시 측은 "남북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 등 민감한 시기이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라 취소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시흥시청 페이스북에 올렸다.

고사에 보면 상궁지조(傷弓之鳥)라는 말이 있다. 활에 상처를 입은 새는 굵은 나무만 보아도 놀란다는 뜻이다.

김포시와 시흥시가 시민들을 위해 벌인 행사가 나름 보기 좋았을지는 몰라도 현 남북 긴장 상태와 과거 북한의 무력 도발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번 불꽃축제는 충분히 놀라고도 남을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시는 국내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개성 오혜진 G마켓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대리
비쁜 일상 모바일쇼핑 '꿀팁'

최근 유통업계에 모바일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실제 필자가 탐독하고 있는 온라인쇼핑 업체(G마켓도 올 상반기에 모바일 쇼핑 부문 매출 비중이 전체의 47%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G마켓도 모바일쇼핑 공략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쇼핑 업체 직원 이 전하는 쇼핑 잘하는 팁을 몇 가지 소개한다. 우선 바쁜 일상에 쫓겨있고 있어 쇼핑할 시간이 없거나, 최근 가장 핫한 아이템만 구입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핫딜의 생활화'를 추천한다. '핫딜'은 메일 또는 메시지 다른 상품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G마켓의 '슈퍼딜', 옥션의 '울킵'이 있다. 아마저도 시간이 없다면 '핫'한 제품만을 골라 문자를 통해 알려주는 푸시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무엇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이들은 '모

바일 전용 혜택'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랜드 제품이라도 모바일 전용 쿠폰 등을 사용하면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 모바일 전용 쿠폰은 제품과 브랜드 별로 수시로 변경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쿠폰 행사 종류와 기간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추석,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있을 때는 맞춤형 제품을 한데 모아 보여주는 전용 프로모션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쇼핑 트렌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해외직구'이기에 온라인쇼핑 업체들은 해외직구 행사에도 나서고 있다. 더욱 손쉽게 쇼핑하기를 원하는 해외 직구족들은 이를 이용해볼길 바란다. 과거 모바일쇼핑이 처음 소개됐을 때 소비자들은 결제시스템에 대한 불안으로 우려했으나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이다. 모바일결제 시스템을 통한 추가할인 혜택도 추천한다.

기자수첩 정경진 부동산팀/jungkj@
이유 있는 '밀어내기 분양'

주택 과잉공급 우려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인허가 받은 주택은 전국 8만283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5.8%가 증가했고, 신규분양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지난해보다 178%가 많아졌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미분양 역시 증가세를 띠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총 3만4068가구로 전월보다 21.1% 많아졌다. 일각에서는 건설업체가 주택시장 호조세를 맞아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 탓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난을 한다. 하지만 정작 건설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내년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밀어내기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시행업체 관계자는 "올 하반기가 지나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다"며 "공급과잉이다" 등의 비난이 쏟아져도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또다시 정책 황금기를 맞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분양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다. 이미 업계에서는 내년 부동산시장은 세금과 각종 규제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책을 완화해서 시장이 살아나면 다시 정책을 규제해 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서는 것을 여러 해 겪어왔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한다. 분명 밀어내기식 분양은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미분양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긴 시간 부동산 침체기를 겪었던 건설업계는 오랜만에 찾아온 부동산 황금기를 놓칠세라 부랴부랴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로 시장이 살아나 만큼, 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정책 불확실성에 시장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공급을 더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업체 스스로 공급과잉을 막고 주택시장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년 시장예측도 가능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혁
社址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부자의 그릇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부자수업, 『부자의 그릇』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신의 그릇만큼 담는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월급이 적어서? 재테크를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기술적이지나 방법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을 바꿔보면 보다 근본적인 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돈을 다루는 능력, 즉,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다를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누군가 아무리 많은 돈과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부자의 그릇』(다산3.0)의 저자 이즈미 마사토는 일생을 '돈의 교양과 본질을 전파하는 데 바쳐온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돈의 본질과 인간관계에 관한 명쾌한 통찰을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은 그의 실제 사업 실패담을 바탕으로 집필한 교양 소설로, 한때 12억 연매출의 주먹밥 가게 오너에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나라으로 떨어진 한 사업가가, 우연히 만난 부자 노인과 7시간 동안 나는 돈과 인생의 비밀에 관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빚을 댄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겨내보니 돈이 와서 담기는 것이더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부자는 부자의 1, 2단계, 즉 남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를 위해 돈을 버는 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인 '남이 나를 위해 돈을 벌여주는 단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7시간 동안 나는 노인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택, 경험, 신용, 리스크 등 부자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를 깨우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도 이러한 '돈의 본질과 관점'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문
화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저자는 파이낸셜 아카데미의 부자수업을 통해 25만 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저자는 늘 말한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고.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을 거 같아"라며 걱정과 고민에만 빠져 있다면, 『부자의 그릇』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보길 바란다.
문의 070-7606-7445





저축·절세·수익을 동시에

# 만능통장 사용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 투자자를 위한 'ISA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 어떤 것부터 골라야 하죠?" 내년 초 도입되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자의 관심이 뜨겁다. 은행 이자로 채테크가 불가능한 시대에 세금 혜택과 증시 투자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자신의 ISA 포트폴리오를 구성·관리해야 한다는 '장점'에 두려움부터 느끼는 투자자도 많다. 이에 금융당국과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예시'를 내놓을 예정이다. 포트폴리오에 담은 만한 '믿고 사는' 대표 상품들, 미리 살펴보자.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구)세금우대종합저축	ISA
가입자격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거주자 종합소득 3천5백만원이하 거주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거주자	만20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 (연 1,200만원)	연600만원	총1000만원	연2,000만원
편입상품	예금, 펀드, 보험	펀드	만기 1년이상 예금, 펀드 등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손익통산	x	x	x	O
상품간교체	x	x	x	O
세제혜택	비과세	납입액 40%소득공제	9%분리과세	순이익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시 9.9%)
기타	의무가입기간 7년(저소득층, 청년은 3년) 2015년 일몰	의무가입기간 5년 2015년 일몰	2014년 일몰	의무가입기간 5년 (저소득층·청년은 3년)

목돈마련의 동반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ISA의 7대 장점**

◇ISA, 어디까지 담을 수 있나? =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계좌 내에는 예·적금을 비롯해 펀드(국내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채권형, 국내혼합형·해외혼합형, ETF 등)와 파생결합증권 일체를 담을 수 있다. 기존 세제혜택 상품인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서는 파생상품 편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ISA를 통해서도 추가연계증권(ELS)이나 랩(wrap) 상품 투자도 가능하다.

가입기간 중 계좌 내에서 상품과 사업자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처음이다. 기존 계좌들의 경우 가입기간 중 상품을 교체하면 해지로 간주됐다. 소장펀드 해지시에는 납입금의 6.6%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고 재형저축 역시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는 탓에 시장 상황이 변해도 쉽게 상품을 교체할 수 없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 기간은 5년으로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굴릴 수 있다. 재형저축은 분기당 300만원씩 연 1200만원(의무 7년), 소장펀드는 연 600만원(5년),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총 10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됐던 것과 비교해 좀 더 많은 금액을 운용할 수 있다.

해외펀드 투자에 도전해보고 싶은 투자자에게도 ISA는 좋은 기회다. ISA는 기존에 이익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서 전체 계좌에서 난 이익 중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취한다.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손실 위험이 부담된다면 안정적인 다른 상품들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 '손익통산'을 통한 절세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단, 내년부터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한해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므로 기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ISA 활용과의 실익을 꼼꼼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추천상품 보나... 장기·안정적 상품 '눈에 띄네' = 증권사들은 ISA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을 추천했다. 중간에 편입상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만 세제혜택을 위해선 5년간 돈을 한 계좌에 묶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혜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배당주펀드 등도 추천상품으로 꼽혔다.

메리츠증권증권은 '메리츠코리아증권1호(주식)'를 ISA에 향후 포함될 만한 대표 상품으로 추천했다. 메리츠코리아펀드는 지난 2013년 설립 후 최근 수탁고가 1조3500억원

### 무엇이 다른가

예금·적금·국내외 펀드·ELS 등 통합 관리  
가입기간 중 계좌내 상품·사업자 교체 가능  
운용한도 2000만원... 수익 200만원 비과세

### 무엇을 담을까

세제혜택 위해선 5년간 한 계좌로 투자해야  
의무가입기간 고려, 장기·안정적 상품 유리  
배당주·해외 펀드·ELS 편입상품 등 추천

에 이르는 회사 '간판 펀드'다. 연간 600여군데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고 5-7년 이상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변동성 장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교보증권도 스몰캡펀드의 조사·분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교보중소형코어랩'을 추천했다. 중소형주의 변동성 확대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지수형 ETF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장기 '모멘텀'을 활용하고 싶다면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유럽에 투자하는 '하나UBS유럽오피니언(주식·재간접)펀드'와 '하나UBS유럽포커스펀드'에 주목하자. 유안타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각각 유럽 펀드를 추천하며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대한 폭넓은 투자 기회를 바탕으로 이들 펀드가 일반 주식형 펀드 대비 차별화된 운용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SA에 ELS 편입이 가능해지면서 삼성증권은 '낙인케어 ELS'와 '슈퍼스타다운 ELS'를 ISA 편입상품 후보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자산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상품으로 '미래에셋글로벌라이나믹펀드', '현대able알짜펀드랩', 배당주 투자자에게는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과 '대신글로벌배당주펀드' 편입을 추천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는 '하

실적포커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과 '저가매수' 전략을 구사하는 'NH-CA Allset 스마트인베스트5.0펀드'도 안정적 성장의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상품 정리·ISA 상품 편입 어떻게? = 최근 증시 하락 국면에서 저평가된 상품투자에 눈길이 갈지라도 ISA 가입 예정인 투자자는 한 번 더 투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ISA에는 투자자가 기존에 가입 중인 상품을 편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펀드를 ISA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기존 투자하는 펀드를 장기보유하면서 ISA의 세제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하반기 중에 적절한 매도타이밍을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마음에 드는 펀드가 있더라도 내년 ISA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라면 하반기는 장기 상품이나 환매가 제한된 상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환매 제한 상품을 피하더라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CMA 등에 단기 예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초보 투자자라면 단기 투자자금과 최소 5년간 장기 투자자금을 구별해 놓는 작업부터 선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 전문가 Tip



이상권

미래에셋투자연구소 상무

## 중간인출때 세금혜택 '제로'... '5년짜리 포트폴리오' 만들어라

1980년대 이후 자본시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경험적으로 정립된 이론 가운데 하나가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이다.

투자 수익의 원천은 종목선택이나 매매 타이밍보다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자산배분이란 게 이 이론의 핵심이다. 자산배분이란 은 출발부터 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의였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자산배분은 고민이 깊지 못했다.

최근에는 고령화의 진척으로 자산 축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자산배분 논의도 부쩍 활발해지는 추

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자산 로케이션(Asset Location)'이란 개념이 등장했다. 자산배분을 하기 전에 먼저 자산을 위치시킬 곳을 찾으려는 것이다.

위치시킬 대상은 바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계좌(Account)'를 말한다.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의 다양한 상품에 자산배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는 게 자산 로케이션의 개념이다. 지금까지 자산 로케이션이 가능한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와 '변액연금'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최근 2-3년 내에

이뤄진 일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용해 자산 로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모두 1억원까지 개별 상품이 아닌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다. 게다가 기존 상품과 달리 개별 상품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더욱 조세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아쉬운 점은 총수의 가운데 200만원만 비과세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20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상품보다는 조세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ISA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예·적금 상품은 절세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투자 상품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해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므로 해외펀드나 ELS와 같은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배당주 펀드처럼 편입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서 세금을 내

야 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절세와 분산투자 차원에서 ISA계좌로 활용할 만하다.

또한 대부분의 절세 상품도 그러하듯이 ISA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으로 중간에 인출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ISA는 연금저축계좌와 더불어 자산 로케이션을 위한 훌륭한 도구이다.

ISA와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 단일 상품이 아닌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는 길이다.

메리츠증권증권 메리츠 코리아증권1호

저평가 우량기업 선별... 1년 수익률 30% 성과

메리츠증권증권은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메리츠 코리아증권1호(주식)'을 추천했다.

메리츠 코리아증권1호(주식)는 시황을 배제하고 철저한 종목 중심의 상황식 리서치(bottom-up, 기업 자체에만 초점)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발굴하고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선별해 장기 투자하는 펀드이다.

2013년 7월 펀드가 최초 설립된 이후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20년간 같이 일해 온 운용팀의 팀워크를 꼽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 최초로, 한국기업에 투자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까지 상장된 '코리아펀드'를 운용했던 존 리가 지난해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맡으면서 20년간 함께 일해 온 팀이 메리츠코리아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철저한 펀드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렴한 종목별 투자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 종목을 발굴해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고 수익 성과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메리츠 코리아증권은 종목 선정시 가치주, 대형주 등 투자 스타일을 따지지 않고 연간 상장기업 600곳 이상을 직접 방문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성이나 건전한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5-7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메리츠자산운용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는 '메리츠 코리아증권1호(주식)' 단 하나뿐인 만큼 운용 역량 및 리스크 관



리의 집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장기투자 원칙을 기본으로 적절한 분산투자와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으로 설정 이후 꾸준한 자금 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수탁자가 1조3500억원에 이른다. 수익률은 6개월 21%, 12개월 30%(2015년 8월 20일 기준)로 최근의 변동성 확대 장세에서도 검증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펀드 가입 및 문의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의 금융상품몰, HTS, MTS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유현 기자 yhssoo@

한국투자증권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안정적 수익에 배당금 재투자 복리효과 추구

한국투자증권은 ISA계좌에 담은 해외주식펀드상품으로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 펀드를 추천했다.

배당상품은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채권에 없는 인플레이션 방어효과도 있어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다. 또한 배당금 재투자로 인한 복리효과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배당 수익률이 한국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데, 과거 12개월 선진국 배당수익률은 영국 4.5%, 프랑스 3.1%, 미국 2.2% 등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1.1%의 낮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듯 글로벌 배당주 투자는 국내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투자 매력에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 펀드는 역외펀드인 '피델리티글로벌배당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상품이다. 10년간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 즉 '배당 귀족'에 투자해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리드엘스비어(Reed Elsevier), 노바티스(Novarti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2.7-3.3%대의 높은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어 지속적인 소득을 투자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저평가된 가치주 위주로 투자해 추가 하락 리스크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주식형 대비 변동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2월 설정돼 8월 18일 기준 1년 누적수익률 13.66%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설정 이후 누적수익률도 40.11%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보수는 클래스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1.0%, 총보수 연 1.565%, 환매수수료는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이다. 클래스 C, C-e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고 총 보수는 각각 연 2.065%, 연 1.465%이며,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이다.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과 인터넷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설경진 기자 skj78@

신한금융투자 연금저축계좌

절세·노후준비 동시 만족... 114개 펀드 라인업

신한금융투자는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금저축계좌를 대표 상품으로 추천했다. 114개의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검증된 펀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올 초부터 연금기획 부서를 확대 개편해 상품 경쟁력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중심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나이가 은퇴준비 고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자산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를 증여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낸 금액의 13.2%의 세금 환급 효과가 있다. 더불어 IRP계좌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간 총 700만원 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자산가들은 연금저축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일시 납입하거나 혹은 부부 합산 3600만원을 일시납입 하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 고객이 일시적인 유동성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 대비해 업계 최저수준 금리(연 3.0%)로 연금저축계좌 담보대출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이가 지속적인 연금펀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총 114개의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자체 개발한 펀드 성과분석 프로그램인 '펀드스코어링 시스템'과



매일 리서치센터 및 상품관련 부서로 구성된 '상품전략위원회'를 통해 추천 상품 및 엄선된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또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시장상황 및 해당 펀드의 수익률, 잔고 현황, 추천펀드를 제공하는 사후관리를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연금기획부 이동근 부장은 "향후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사적 연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유안타증권 하나UBS유럽오퍼튜니티[주식-재간접]펀드

유로존 저·고평가株 매수·매도 초과수익 추구

유안타증권은 경기 및 이익 회복세를 보이는 범유럽(유로존 포함)의 투자 기회를 활용해 차별화된 운용 성과를 추구하는 '하나UBS유럽오퍼튜니티[주식-재간접]펀드'를 울여름을 뜨겁게 달궜을 유망투자상품으로 추천했다.

이 상품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및 유럽과 글로벌 경기회복 모멘텀을 투자기회로 활용해 저평가 주식을 펀드 순자산의 130% 수준으로 '더 많이' 매수한다. 여기에 유로존의 구조적 리스크, 성과부진 예상 업종 및 종목 중 고평가된 주식을 순자산의 -30% 수준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저평가 주식을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더 많이' 매수함으로써 더 넓어진 종목 투자기회를 통해 수익을 높이고, 고평가 주식은 '매도해서' 종목 하락시 수익을 추구하는 등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기회를 넓히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바 주식 매수(Long)포지션과 매도(Short)포지션을 활용한 두 개의 전략, 두 개의 엔진을 지닌 차별화된 펀드인 셈이다. 다만 주식 순편입비율 순자산의 100% 수준으로 유지, 시장과 비슷한 위험비중으로 운용 성과의 변동성 및 위험관리를 실행한다.

투자 대상의 경우, 유로존에만 국한하지 않고 범유럽에 상장된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적극 투자하는 유연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운용한다. 따라서 이 펀드를 통해 투자자들은 낮설지 않은 글로벌 다국적 회사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펀드는 이러한 투자대상과 운용전략에 따라 범유럽 대상 글로벌 다국적 기업 투자를 기본으로 하되 ECB의 양적완화, 글로벌 경기회복의 수혜가 예상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선별해 집중 투자(더 많이 매수)하고, 유로존의 구조적 리스크, 경기회복에 약한 업종 및 실적부진 기업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비중 축소 및 매도함으로써 차별화된 운용수익을 기대한다. 이 펀드의 총 보수는 Class A는 선취판매수수료 1%에 연 0.97%고, Class C의 경우 연 1.67%다. 환매수수료는 A클래스 30일 미만 이익금의 10%다. 정유현 기자 yhssoo@

NH투자증권 NH-CA Allset스마트인베스터5.0 펀드

스마트 분할매수... 증장기 투자 목돈마련 적합

NH투자증권은 스마트한 분할매수 전략을 활용해 평균매입 단가 인하 효과를 높인 'NH-CA Allset스마트인베스터5.0 펀드'를 추천했다.

'NH-CA Allset스마트인베스터5.0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이 특허를 갖고 있는 자동 시분할 매매 시스템인 '스마트인베스터' 전략을 기초로 운용되는 이 펀드는 박스권 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어 최근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펀드의 운용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매수금액을 확대하고, 상승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매수금액을 축소하는 스마트한 분할매수 전략을 활용한다. 또한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매함으로써 주식시장 전체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통해 개별종목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채권형 ETF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펀드의 기준가격이 4%만큼 오를 때마다 매도를 통해 주식투자 비중을 다시 20% 수준으로 축소하는 운용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보한 수익을 안전하게 쌓아 나갈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매매 타이밍을 잡지 못해 투자가 어려운 고객과 증장기 투자를 통해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는 고객에



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분산효과를 높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운용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NH-CA Allset스마트인베스터5.0 펀드'는 NH농협금융에서 내놓은 'Allset' 펀드에 포함된 그룹 대표 상품이다. 'Allset'은 '새로운 희망, 완벽한 준비'를 의미하며,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한 'NH-CA'자산운용의 대표상품 브랜드다. NH-CA자산운용은 NH투자증권 및 NH농협은행과 공동으로 6종의 상품을 출시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현대증권 현대able 알짜 펀드랩

전문가가 짜주는 국내외 알짜 펀드 포트폴리오

현대증권은 기존금리 하락으로 더 이상 예금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맞춰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냈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펀드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현대able 알짜 펀드 랩'을 대표 펀드로 손꼽았다.

먼저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국내의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개별펀드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 4개와 유럽, 중국 관련 펀드 각각 1개, 총 6개 국내외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는 현대증권의 추천 펀드군 가운데 국내외 시장 전망과 분석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유망한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현대증권 각 부서별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

먼저, 투자컨설팅센터의 국내외 시장전망 및 분석을 통해 유망 지역을 선정한다. 이후 상품전략부에서 펀드성과 및 매니저 미팅 등을 바탕으로 유망펀드를 선정한다. 고객자산운용 소위에서 이를 최종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 운용은 랩운용부에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리해 나간다.

또한 시장점점 및 자산별 운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에 나선다. 투자일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펀드



투자가 가능한 것도 이런 배경 덕이다. 현대able 알짜 펀드 랩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가입기간은 2년이며 수수료는 연 0.2%(분기후회, 편입자산 보수 별도)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 간 부양정책 강도 및 경기회복 온도차에 따라 어느 국가나 섹터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투자 성적도 현저히 달라지는 상황이다. 회사측은 "현대able 알짜 펀드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산투자하는 대안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증권 낙인케어 ELS·슈퍼스텝다운 ELS

안정성 높이고 '시중금리+알파' 수익 추구

삼성증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추가연계증권(ELS)을 ISA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을 추천했다.

기존 세계 헤택 상품인 재정저축과 소장펀드에서는 과세상품 편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ISA에는 예금, 펀드는 물론 과세상품 편입이 가능해지면서 ELS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최저금리 상황에서 '낙인케어(knock-in care) ELS'와 '슈퍼스텝다운 ELS'를 투자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는 27일까지 판매하는 'ELS 12475회'는 설정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초자산이 15% 이상 하락하면 상환구조가 더 안전하게 변경된다.

이 상품은 한국(KOSPI200)과 유럽(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 상품이다. 3년 만기로 6개월마다 두 지수가 모두 최초 기준가의 90% 이상(6, 12, 18개월), 85% 이상(24, 30, 36개월)이면 연 5.68%로 상환된다. 원금 손실 발생 구간은 60% 수준이다.

설정 이후 2개월 이내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15% 초과 하락하는 경우 상환조건과 원금 손실 발생 구간이 모두 10%포인트 내려간다. 이 경우 80% 이상(6, 12, 18개월), 75% 이상(24, 30, 36개월)이면 연 5.68%로 상환된다. 원금 손실 발생 구간도 50%로 내려간다.

슈퍼스텝다운 ELS는 원금 손실 발생 구간을 얇게 추가가 급변하더라도 만기 전에는 수익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다. 같은 기간 판매하는 'ELS 12477회'도 한국(KOSPI200)과 유럽(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이다. 3년 만기로 6개월마다 두 지수가 모두 최초기준가의 90%이상(6, 12, 18개월), 85%이상(24, 30, 36개월)이면 연 5.68%로 상환된다는 조건도 같지만 낙인 배리어가 없고 연 5.44%의 수익을 지급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ELS의 원금 손실 우려와 추가연계과생 결합사채(ELB)의 낮은 수익률을 보완한 것으로 안정성은 강화하면서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대신증권 글로벌 고배당주 펀드

美증시 상장 애플·인텔 등 우량주 집중 투자

최근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갖춰질 것이라며, 금리인상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경제가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하고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근접하며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달러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한 이유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연말 원·달러 환율을 1200원으로 전망하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대신증권은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는 하우스 뷰를 작년 초부터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선진국시장과 신흥시장 등 투자지역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다면, 이제는 통화 관점의 글로벌 투자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후반의 달러 강세 국면이 재현될 것을 대비해 중앙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증권은 하우스 뷰에 기반한 전략상품으로 글로벌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인 '대신 글로벌 고배당주 펀드'다. 이 상품은 과엔지(P&G), 유니레버(Unilever), 애플(Apple), 인텔(Intel) 등 우리 생활에 익숙한 글로벌 우량기업 중 수익성, 재무안정성, 성장성 등을 분석해 기업가치와 배당금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한다. 이 종목들은 변동성이 낮고 배당수익이 높아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수익을 추구한다.

모닝스타의 자문 서비스를 활용해 주식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대상으로 모닝스타의 리서치를 통해 종목을 발굴하며, 고배당주 및 배당성향이 높은 가치주를 최종 선정해 투자한다. 환노출형 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추가적 환차익·환차손이 가능하다.

신락보수는 0.697~1.847%다. 최초 가입 후 9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30~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한다. 송영록 기자 syr@

교보증권 중소형 코어랩

유망 中企 발굴해 주식·유동성 자산에 베팅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도발 등 대내외적 약재에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연초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이끈 중소형주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보증권은 '교보 중소형 코어랩'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교보 중소형 코어랩'은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종목을 발굴하고, 시장 대비 높은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스톡캡 분야 종목 추천 능력을 입증받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스톡캡팀의 추천종목을 토대로 운용된다.

투자대상은 주식(코스피, 코스닥)과 유동성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0~100% 탄력적 운용)이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운용전략은 '중형주 투자전략'과 '강소형주 투자전략' 2가지 기법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중형주 투자전략은 시가총액 5000억~2조원 사이의 강력한 턴어라운드 보이는 기업 혹은 구조적 성장성 가능하고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기업에 투자한다. 또 강소형주 투자전략은 시가총액 500억~5000억원 사이의 강소형주 투자를 통한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특히 시장이 불확실성이 휩싸인 가운데 '교보 중소형 코어랩'의 장점은 버텀업(Bottom-up) 방식과 톱다운(Top-down) 방식을 병행해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도록 설계됐다. 양방향 방식을 토대로 2주 단위로 중소형주의 과거 추천종목 평가와 동시에 향후 성장성이 높은 저평가 및 장단기 유망종목 10~20종목을 발굴해 비교 분석한다. 과거와 현



재의 추천종목을 비교 분석해 개별 종목 실적과 업종 모멘텀이 증명된 종목을 엄선해 거시환경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종목을 찾아 상황에 맞게 주식 비중을 조절한다.

또한 중소형주의 변동성 확대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지수형 ETF에 투자해 리스크를 분산한다. 이는 시장 수익률 수준의 업종 및 종목은 지수 ETF로 대체해 운용의 단순화와 동시에 수익률 하락을 방지한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최소 계약기간은 12개월이나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다. 김희진 기자 heejin@

KDB대우증권 글로벌 두루두루 랩

최적의 글로벌 자산배분... 채권보다는 고수익

KDB대우증권은 지난 4월 1일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투자상품인 '글로벌 두루두루 랩'을 출시했다.

'글로벌 두루두루 랩'은 성공적 자산배분을 위해 KDB대우증권이 전사적 핵심 역량을 집중해 만든 모델포트폴리오와 투자상품의 명칭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해, 국내·해외 주식투자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성과를 추구한다.

주식과 대안자산의 편입비중에 따라 안정형, 중립형, 수익형으로 나뉜다. 연간 6~7% 수익을 기대하는 고객이나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이 부담스럽고 안정적 상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운용부서, 전략부서, 위험관리부서 등이 3개월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통일된 하우스 뷰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기회가 보이는 자산의 투자비중을 늘리고, 위험이 감지되는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과정을 반복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또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찾아 매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손쉽게 글로벌 자산배분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성호 상품개발운용본부장은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도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과거 성과를 분석해 보면 하락 시 방어능력이 뛰어나고 회복 속도도 빨라 손실을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며 "글로벌 두루두루 랩은 투자자산이 안정적으로 잘 분산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최적의 자산배분 비율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



에 일부 지역이나 자산군이 리스크에 노출되어도 전체 자산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방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KDB자산에서 출시된 글로벌 두루두루 펀드도 같은 모델 포트폴리오를 근거로 운용되는데, 일반투자자는 물론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다양한 투자 니즈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KDB 글로벌 두루두루 연금펀드의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담이 없어,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하나대투증권 하나UBS 유럽포커스 펀드

유로화 약세, 기업실적·무역수지 개선 기대

하나대투증권은 향후 ISA에 편입할 상품과 관련, 글로벌 투자 전략에 근거해 최근 양적완화를 통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유럽에 집중 투자하는 '하나UBS 유럽포커스펀드'를 추천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국내시장의 저성장과 저금리에 따라 글로벌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글로벌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시장은 ECB의 양적완화 시행으로 인한 정책 수혜가 기대되며, 유로화의 약세로 기업 실적과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어 매력적 투자처라는 판단이다. 또한 최근 그리스의 유로 이탈 문제가 해소되면서 리스크도 줄어든 시점이다.

'하나UBS 유럽포커스펀드'의 운용은 UBS글로벌자산운용이 담당한다. UBS글로벌자산운용은 유럽의 금융강국인 스위스에 기반을 둔 세계적 자산관리 투자은행으로 뛰어난 리서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펀드의 운용과 리스크 관리는 독립적 알파 운용팀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UBS 유럽포커스펀드'의 운용방식은 UBS글로벌운용의 리서치에서 고유의 투자 종목군(투자유니버스)을 설정하고, 그중 40~60개의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투자전략은 상향식



(Bottom-UP)방식으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변화를 조기 포착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분산투자보다는 투자 확신이 큰 종목에 집중 투자하며, 주식의 편입 비중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투자 매력 정도에 따라 조절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이 펀드는 2014년 기준으로 3년·5년간 누적 환산수익률이 최상위 펀드집단으로 분류됐다.

한편 '하나UBS 유럽포커스펀드'의 보수는 A형이 선취수수료 1%에 연 0.97%, C형은 연 1.67%, 온라인 전용펀드인 C-e형은 0.77%다. 환매수수료는 A형이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C형은 30일 미만 70%, 90일 미만 30%이다. 김경아 기자 kakim@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다이나믹 펀드

해외 채권에 분산투자... 변동성 1~2%로 최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1%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더 이상 은행 예금으로는 자산을 불리는 것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수익률을 좇아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저성장, 초저금리 시대에는 손실이 날 경우 회복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변동성으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게 국내외 여러 유망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이 적절한 투자 대안이다.

내년 출시 예정인 ISA계좌는 단일 상품인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이다. 따라서 ISA계좌 내에서도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히 위험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의 모델포트폴리오(MP)의 제공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MP)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리서치와 해외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의견이 바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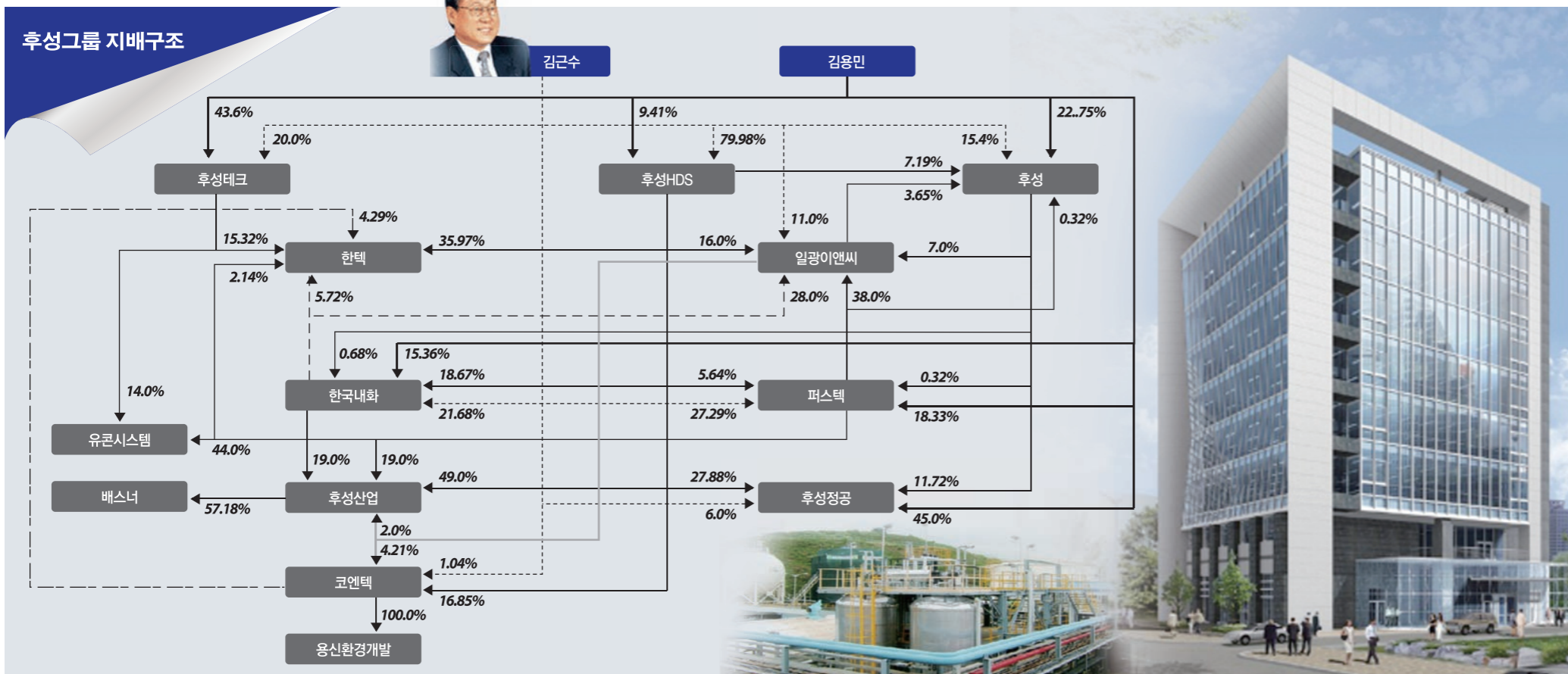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 펀드는 이러한 '글로벌 자산배분' 차원에서 ISA계좌에 일부 편입할 만하다. 이 펀드는 전 세계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해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편차가 최근 1~3년 동안 1~2% 수준으로 해외채권형 펀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30여 개국 390개 이상의 글로벌 채권에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국제신용등급 'BB-' 이



상인 채권에만 투자한다. 이를 통해 펀드의 평균 신용등급은 'A-' 이상으로 유지해 신용 위험 측면에서 안정적 구조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연 단위로 단 한 차례도 손실을 내지 않았으며, 2006년 출시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2%에 달한다.

이 펀드의 지난해 말 기준 국가별 채권 비중은 미국 33.92%, 한국 17.53%, 인도 4.95%, 중국 4.88%, 인도네시아 4.17% 등이다. 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이 주로 담당하며, 국내 채권운용 부문과 해외 현지법인의 리서치 네트워크가 활용된다. 송영록 기자 syr@

# 창업주 김근수 회장父子, 지주사격 '후성HDS' 89.39%



## '체질개선' 후성·퍼스텍 올들어 주가 상승세로

후성그룹의 유가증권 상장사 후성과 퍼스텍이 올해 들어 주가가 요동치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체질 개선에 나선 후성과 퍼스텍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후성그룹은 한국내화, 후성, 퍼스텍 등 유가증권 상장사 3개와 코스닥 상장사인 코엔텍 등 총 4개 상장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후성과 코스닥이 올해 들어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후성의 주가는 지난해 2000~3000원대 구간에서 큰 움직임이 없이 유지해온 가운데 지난 6월 장중 5270원까지 상승했다.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흑자전환이 전망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실제 후성은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017억5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각각 66억3700만원, 55억3600만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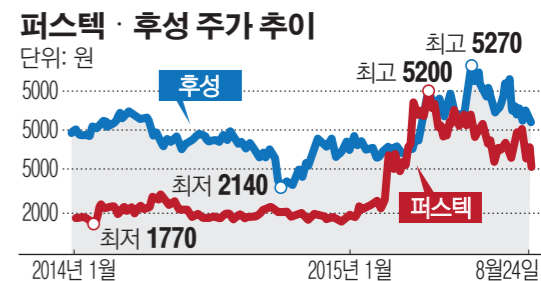
## '후성'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라인 투자 '퍼스텍' 드론 등 무인기 개발 협업 늘려

냉매가스사업과 2차전지 전해질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후성은 2차전지 전해질의 중국업체 진출에 따른 단가인하 등의 영향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수익성 높은 반도체용 특수가스 신규라인 증설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증권업계는 평가했다.

또 퍼스텍도 올해부터 주가가 들쭉이면서 크게 올랐다. 지난해까지 퍼스텍의 주가는 1500~2500원대에서 머물렀으나 지난 3월 5200원대로 정점을 찍었다.

퍼스텍은 항공기 관련 전자장비 부품 및 유도 무기 전자장비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방위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드론 관련 사업은 자회사 유콘시스템이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 등과 함께 드론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해 협업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퍼스텍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한국형 무인기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 헝가리에 리모-H 드론을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 120 후성그룹

#### FOOSUNG (주) 후성

후성그룹은 1980년 인수한 한국내화를 모태로 한다. 1983년 현대중공업 화공사업부인 울산화학을 인수하고, 1988년 석수화학을 설립한다. 현재 한국내화, 불소화합물 및 2차 전지용 소재사인 후성, 방위산업체 퍼스텍 등 유가증권 상장사 3개와 코스닥 상장사인 산업폐기물 처리 전문업체 코엔텍 등을 비롯해 국내외 총 26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성장했다.

## 故정주영 회장 조카로 80년대 사세키워...2012년 2세 김용민 회장 승계 부인·두딸 포함 오너가 '한국내화' '후성' '후성테크' '코엔텍' 등 지분 보유 계열사 26곳 중 4곳 상장...'후성산업' 흑자전환 불구 부채율 900% 육박

◇현대그룹 방계, 김근수 회장 창업... 아들 김용민 사장과 2세경영 체제 돌입 = 후성그룹의 창업주는 김근수 회장이다. 김 회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여동생 고(故) 정희영씨의 '기계 박사'로 불렸던 고(故) 김영주 한국프랜차이즈 명예회장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이에 후성그룹을 현대그룹의 방계그룹으로 칭하기도 한다.

김 회장은 경희대학교 경영학을 졸업했으며, 198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수료했다. 그해에 김 회장은 한국내화를 인수하고, 3년 뒤 현대그룹으로부터 울산화학을 인수했다. 1985년 불산공장을 완공하고 1988년 석수화학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경영자로서 길을 걷는다.

김 회장은 부인 허경 여사와의 사이에 용민·나연·주연씨 등 1남2녀를 낳았다. 아들 김용민 후성그룹 사장은 미국 워싱턴대학교를 졸업하고, 코넬대에서 MBA과정을 밟았다. 20대 후반부터 그룹 내에서 경영수업을 받으며, 30대에 임원을 맡고 경영일선에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지난 2012년 김 회장이 한국내화와 후성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며, 김용민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다. 이로써 후성그룹은 2세 경영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후성그룹은 2008년 설립된 후성HDS가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난 30여년 동안 화학, 자동차,

방산, 건설, 시스템 등 기초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주력회사인 한국내화는 정형, 부정형, 열기성 및 각종 내화물과 알루미늄 합금 및 탈산제, 비금속 미분체 등을 제조·생산·판매 및 시공하는 종합내화물 기업이다.

후성그룹은 김 회장과 김 사장 두 사람이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거느리고 있다. 김 회장과 김 사장 두 사람은 각각 후성HDS 지분 79.98%와 9.41%를, 한국내화 지분 21.68%와 15.39%를, 후성 15.4%와 22.75%를, 퍼스텍 27.29%와 18.33%를, 후성정공 6%와 45%를, 후성테크 20%와 43.6%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일광이앤씨와 코스텍의 지분을 각각 11%, 1.04% 갖고 있다.

이 외에 허경 여사가 한국내화와 코엔텍에 각각 0.15%, 0.1% 출자하고 있다. 김 회장의 두 딸 김나연씨와 김주연씨는 경영활동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주요 계열사에 지분을 출자하고 있다. 장녀 김나연씨는 한국내화 지분 0.45%를 비롯해 후성과 코엔텍 지분을 각각 0.08%씩, 그리고 후성테크 지분 10%를 갖고 있다. 차녀 김주연씨는 한국내화 0.67%를, 후성 0.08%, 후성테크 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손자 김호중군이 0.06%가량 한국내화 지분을 보유하고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후성그룹, 전체 매출 1조2500억원대... 후성·

한텍 등 일부 계열사 적자 키워 = 후성그룹은 지난 2014년 기준 전체(국내법인) 자산규모 1조3700억원 가량, 전체 매출액 1조2500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력회사인 한국내화가 262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후성(1751억6700만원), 후성정공(1551억9000만원), 플랜트산업 시설 전문기업인 한텍(1534억4300만원), 후성에이치디에스(1237억3000만원), 퍼스텍(109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력회사인 한국내화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지만 재무 상황은 양호하다. 신병사에 따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창출 능력이 양호하고, 투자활동 및 자금조달도 원활한 기업으로 판단됐다.

반면 후성, 한텍 등 일부 계열사들은 적자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후성은 지난해 말 매출액이 전년 대비 9.3% 줄어든 가운데 영업손실 95억원과 순손실 672억원을 나타냈다. 순손실 규모는 지난 2013년 적자금액이 289억원인 것과 비교해 132.2% 증가한 금액이다. 또 한텍은 지난해 영업손실로 돌아섰으며, 순손실 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 늘어났다. 적자 상태인 후성HDS는 전년 대비 적자금액을 92%가량 줄였다.

이와 함께 후성테크, 일광이앤씨, 유콘시스템 등 3개 계열사는 지난해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후성테크는 순이익 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으며, 일광이앤씨와 유콘시스템은 각각 12억원, 61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1.4%, 83.4% 감소했다.

또한 후성산업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 896.4%로 재무상황이 열악하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법사에 감사하라'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대한민국 1등 비타민C 회사\***

고려은단이 만든 프리미엄 비타민C

**고려은단 프리미엄 비타민C 골드**

비타민C 1,000mg  
 비오틴 30μg  
 비타민D 5μg (200IU)

비타민C에 비오틴, 비타민D를 더한 프리미엄 비타민

고객센터 080-277-0006  
 www.koreaeundan.com

\* [2013년 비타민무기질 제품군 생산실적기준 매출액]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 대표 넘어 '세계 1등' 동물약품업체로 날갯짓

## (주)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

친환경 항생제 대체제 원천기술 보유 기반  
中·日·印尼 등 18개국 수출 글로벌 업체로  
발효원료 국내 첫 개발... 기술국산화 총력



심승규 대표이사

관리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다.

심 대표는 "한국 동물약품산업 원료의 수입 의존도는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뛰어난 품질력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국산화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 아래 지난 1990년 국내 업체 최초로 순수 우리 기술로 발효원료를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일바이오의 대표 제품인 '사카로키투'를 출시했다. 이후 10여 개국에 제일바이오의 기술력을 전달하며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독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효제품으로 꾸준히 양산 중이다.

제일바이오가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경쟁력으로는 발효 원료의 원천기술 보유와 더불어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꼽을 수 있다. 설립 이래로 38년 동안 약 6000개의 제품을 생산하며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로 농림부로부터 동물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KVGMPO)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발효원료 개발뿐만 아니라 고초균 및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보유한 유산균의 개발 및 특허를 취득해 생균제 시장에도 진출했다.



제일바이오 회사 전경.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일바이오는 지난 38년간 매년 꾸준히 이익을 내며 타사 대비 우량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연평균 24%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4%, 166% 성장했다.

제일바이오는 또 발효 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진단키트와 건강식품 사업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실제로 제일바이오는 동물약품 산업분야 중

발효분야에서 순수 외국 기업을 제외하고 업계 최대 발효시설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일바이오의 신규 사업인 건강보조식품 또한 이러한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제일바이오의 원천기술인 발효기술을 활용해 발효 홍삼, 발효 흑마늘 등 건강보조식품을 개발·양산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발효 흑마늘의 경우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제일바이오만의 유산균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제일바이오는 세계 동물약품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향후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진출, 제2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 현지 법인 설립 및 시설 확충을 통해 11월 양산을 시작해 이르면 내년 1분기에는 매출 인식을 일으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일바이오 중국 공장 대표를 맡게 될 이영호 실장은 "제일바이오는 중국 수출 경험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탄탄한 현지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성장하는 중국 동물약품시장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심승규 대표는 "지금까지 제일바이오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로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약품업체로 성장했다"며 "향후에도 이 같은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동물약품 시장의 견인과 함께 2020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속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 심장병 어린이 후원서 장애인 자활까지 미래사회 위한 '진짜 투자'

'인류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를 경영이념으로 삼은 오뚜기는 20여 년 동안 심장병 어린이 후원 사업을 통해 3966명(2015년 7월 기준)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등 다양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에게 일감을 주어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한 차원 높은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오뚜기의 사회공헌 활동은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귀감이 될 만하다.

1992년부터 3966명 어린이들에 새 생명  
굿윌스토어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대학생 장학사업 등 다각도로 희망 전파

◇미래 사회의 주인공은 어린이... 어린이와 소외계층 지원사업 = 오뚜기의 가장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 사업은 나라의 희망이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은 10세 이전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에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해 고귀한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1992년 본격적으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사업을 시작했다.

오뚜기는 1992년부터 20여 년간 IMF, 장기적 경기 불황 등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후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왔다.

◇장애인 자립 도와 자존감 높인다... '굿윌스토어' 판매물품 후원 = 오뚜기는 지난 2012년 6월 18일부터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밀알재단의 '굿윌스토어(Goodwill Store)' 송파점과 도봉점에 오뚜기가 생산하는 주요 선물세트 조립작업 임가공을 위탁하고, 2014년 10월 개점한 전주점, 올해 2월 개점한 구리점에도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에게 생활용품이나 의류 등의 물품을 기증받은 후 장애인들이 잘 손질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선물 세트 임가공은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3000명 기념행사서 공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심장병 어린이들(왼쪽)과 굿윌스토어 장애인들이 견학 후 느낌을 표현한 그림판.

자립을 돕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금전보다 더 절실한 것이 일거리를 주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장애인들이 용기를 갖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일감과 물품을 지원해 그 판매수익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 사례다. 최근에는 2014년 10월 개점한 굿윌스토어 전주점과 올해 2월 개점한 구리점에도 물품 지원을 시작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뚜기가 굿윌스토어에 임가공 위탁한 선물세트는 총 200만 세트가 넘고, 7회에 걸쳐 진행된 사내 물품 나눔 캠페인을 통해 기증한 물품은 3만2000점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부터는 매년 벡센프로야구단 홈구장인 목동 야구장에서 밀알재단 굿윌스토어 장애인을 초청, 벡센의 야구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굿윌스토어 소속 장애인들이 경기의 시구와 시타자로 나서서 등 뜻 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

◇다각도로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 노인·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 지원 = 오뚜기는 계층별로 가장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는 1999년부터 푸드뱅크와 전국의 복지단체를 통해 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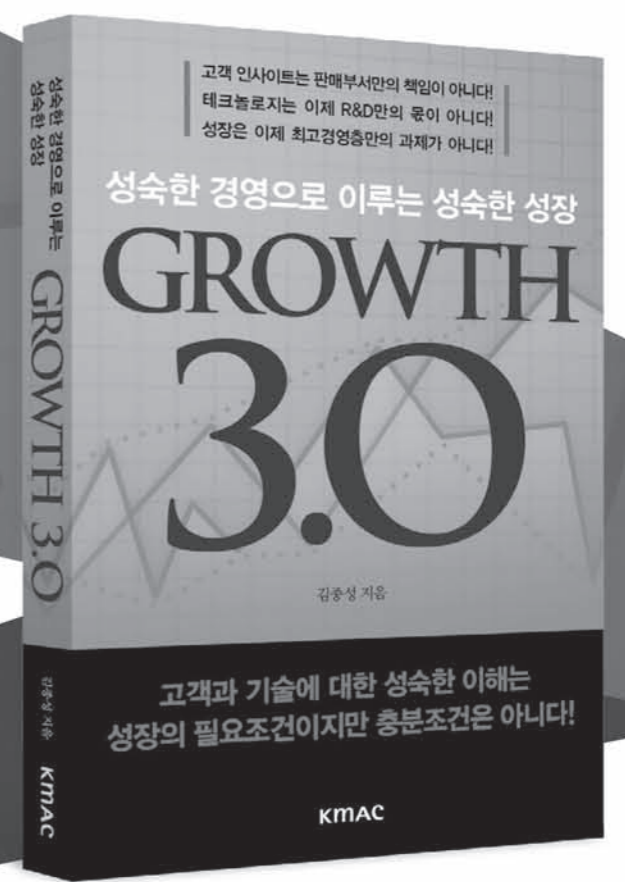
2012년 8월 '오뚜기봉사단'을 출범시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 우리 사회 곳곳에 꿈과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오뚜기 공장이나 영업지점이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요리교실을 통한 노력 봉사와 재능기부, 환경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1996년 설립된 재단법인 오뚜기재단에서는 다양한 학술진흥사업,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97년 5개 대학 14명의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총 500여 명에게 25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09년에는 오뚜기학술상을 제정, 연 2회 한국식품과학회와 한국식품영양과학회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과 국민 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식품 관련 교수, 식품사 연구원 2명을 선정해 상금 60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학술상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명이 수상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사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GROWTH 3.0  
김중성 지음 | 값 15,000원



후강통 거래주식  
예탁결제 서비스

예탁원, 신용 리스크 노출 감소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후강통을 통해 거래한 중국 A주식(중국 내국인 투자 전용 주식) 500여 종목을 증권사로부터 이 전받아 후강통 거래주식의 예탁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후강통 거래 주식의 예탁결제는 촉박한 결제주기와 매도 가능 수량 사전확인 제도(Pre-Trade Checking) 등의 규제로 인해 그 시행이 지연돼 왔다. 중국 증권시장은 주문 당일 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후강통 결제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 열리기 전에 보유한 증권 수량 한도 내에서만 매매거래할 수 있는 매도 가능 수량 사전확인 제도라는 규제가 존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콩거래소가 지난 4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인 씨티은행 홍콩과 협력해 안정적 후강통 투자에 대한 예탁결제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현지 증권사에 보관 중이던 국내 투자자 소유의 후강통 거래 주식에 대한 신용 리스크 노출에 대한 염려가 현저히 감소하게 됐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올초 주요 사업으로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권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방침을 추진했다"며 "규제가 많고 시장 관행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후강통 거래 주식에 대해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국밸류·에셋플러스·라자드·메리츠운용  
“고객 소통 운용 보고서 톱4”

운용사들의 갑(甲) 위치인 펀드 판매사가 고객 소통, 투자철학, 창의적 사고에 근거한 베스트 운용사 보고서 TOP 4를 추천해 눈길을 끈다. 25일 키움증권은 '출판한 자산운용보고서가 담아 낸 새 가치' 특색-소통, 선관주의, 창의적 사고'라는 보고서를 내고 최근 펀드 성과가 우수한 한국밸류, 에셋플

러스, 라자드, 메리츠운용의 운용보고서가 고객과 소통하며 장기 투자철학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김병중 키움증권 연구원은 "운용사마다 차별화할 수 있는 역량은 바로 기업을 고르는 장기적 안목이고, 그 안목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며 "앞서 언급한 운용사들은 소수 펀드만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므로, 니즈에 따라 여러 개의 다양한 펀드를 출시하는 종합운용사와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마케팅 활동 대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 운용보고서는 고객과 소통 철학이 녹아 있는

키움증권, 운용사 4곳 추천

한국밸류, 운용철학 확고 원조급 보고서  
에셋플러스, 경제다큐 같은 매니저 코멘트  
라자드, 겸손함과 투자자 위한 진정성 보여  
메리츠, 열띤 토론 분위기 그대로 옮긴 듯

원조급 운용 보고다. 현재 이 펀드의 1년 성과는 시장 대비 부진하지만, 한국밸류 운용이 성장 가치에 보수적인 이유, 장기적으로 성장 가치보다 수익 가치가 높아 추가 상승한다는 확고한 운용철학을 보고서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다.

공모펀드 직관 최초 운용사인 에셋플러스운용의 운용보고서도 고객의 눈높이에 따라 작성해 쓸쓸한 재미를 제공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에셋플러스리치투자펀드 매니저의 코멘트를 읽어 보니 마치 한 편의 경제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와 세계 금융시

장을 분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짚었다"며 "실제 평범하지 않은 그리스 위기 분석과 미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보는 시각에서 남들과 다른 일등 기업을 찾고자 하는 매니저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라자드운용의 보고서는 겸손함과 투자자를 위한 진정성이 돋보였다

이다. 이 밖에도 메리츠운용의 보고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운용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취지에서 서술적으로 쓰는 한편, 펀드 매니저의 기업을 위한 탐방과 고민 등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것.

김 연구원은 "메리츠코리아펀드의 운용보고서는 경쟁업체 입장과 투자자 입장에서 각각 분석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지식을 확대시켜 열띤 토론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온 듯하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업을 글로벌한 관점에서 기업 분석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메리츠운용의 폭넓은 행보가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바닥 찍은 금거래 폭증...“멀리 보라”

불안한 증시 실물자산 반짝인기  
역대 최대 하루 30.6kg 거래 기록  
단기 상승 선부른 추종매수 위험

중국 증시 폭락과 북한 도발 등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실물자산에 반짝 인기가 쏠렸다. 지속적 원자재 섹터 하락세로 한때 1톤(3.75g)에 20만원이 훌쩍 넘던 금 가격이 10만원대에 장기간 머물면서 저가 매수 투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상승국면에서 선불리 추종 매수하기보다는 장기적 대체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KINDEX골드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 수익률은 7.5%로 집계됐다. 중국 증시와 원유가 폭락으로 혜택을 입은 'TIGER차이나A인버스(합성) ETF(+9.92%)', 'TIGER원유선물(H)ETF(+8.7%)'에 이어 ETF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KODEX골드선물(H)ETF'와 'TIGER금선물(H)ETF'도 각각 3.82%, 3.64%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약 4.7%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제 금시세는 지난 15일 온스당 1085.10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해 21일 온스당 1164.90달러(+7.4%)

를 기록했다. 다만 금과 동반 상승하던 은 가격은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47.1로 전망치인 48.2와 전월(47.8) 수치를 하회하면서 상승 흐름이 둔화됐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도 금시세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과 실물사업자의 매수세가 겹치며 역대 최대 거래량인 30.6kg을 달성했다. 직전 최고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6일의 28.24kg이다.

이에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 가격 상승기에 매도로 차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스티브 스카칼로시 미국 TD증권 상무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중국의 원자재 수요도 약한 상황"이라며 "금 가격이 올랐을 때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성장둔화로 실물자산 가치가 영향을 받으면서 원자재 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된다면 하락 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상이나 수급 등 시장의 국면이 개선되면 원자재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고 이미 하락세가 오래 지속된 만큼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섹터"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원자재 관련 인버스 ETF와 레버리지 ETF에도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공시를 알아야 현명한 투자자 된다”

어바웃어북 '기업공시 완전정복'  
인포그래픽으로 이해도 높여

어바웃어북은 '기업 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의 후속판'으로 김수현 저자의 '기업공시 완전정복'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공시 완전정복'은 소문과 테마에만 의존해 대박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공시를 바탕으로 한 기업 분석 방법을 실었다.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공시를 모르고는 현명한 투자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책은 경영의 새로운 흐름과 기업 환경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최신 사례를 풍성하게 담고 있다. 아울러 감각적이고 위트 넘치는 인포그래픽은 공시라는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 이해도를 높여준다.

저자인 김수현 글로벌모니터 대표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중앙일보와 이데일리에서 산업부 제계팀장, 경제부 정책팀장, 산업부장, 증권부장 등을 거치며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했다.

기자생활 중 국내 굴지 그룹들의 검은 거래를 파헤친 특종 기사로 두 차례 기자협회 기자상을 받았다.

또 2008-2012년 금융·증권·제조·유통·IT 등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의 주요 기업들을 해부한 '업계지도'를 매년 출간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2013년 초에는 기업공시와 금융, 회계, 주가, 경영에 얽힌 내막을 파헤친 '기업 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공저)을 내었다.

현재는 기업체와 증권사 임직원, 언론사 증권담당 기자, 대학 경영학과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유안타증권, 독자 브랜드 체크카드 출시

5% 우대...증권사 고객 특화서비스

유안타증권은 최고 연 +5% 우대수익률과 생활밀착형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자 브랜드 체크카드인 '유안타 CMA+ 체크카드'와 '유안타 Life+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유안타증권 체크카드는 금리우대형인 '유안타 CMA+ 체크카드'와 생활할인형인 '유안타 Life+ 체크카드'이며, 고객 본인의 이용 패턴 및 기호에 따라 선택 발급할 수 있다.

체크카드 출시 기념으로 10월 31일까지 'CMA+ 카드' 발급 고객에게는 연말까지 연 +2%의 추가 수익률을 제공하고, 카드 발급 및 사용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골드바(10g)를 증정한다.

유안타증권 최성열 마케팅팀장은 "독자 브랜드 체크카드 출시를 통해 기존 카드사



를 통해 발급했던 체크카드와 달리 증권사 고객에게 더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카드 상품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 업무는 BC카드와 업무 제휴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시켰다. 정유현 기자 yhns00@

처음 시작하는 주식투자는 이 한권으로!

신가치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확인하시려면 <www.segerotv.com> 스마트폰 청취가능!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2015년 新 주식거래제도 반영!



강병욱 지음 | 1423쪽  
한빛비즈 | 값 16,000원

최신제도, 최신 이슈, 최신 데이터로 다 바꿨다!  
겉표지부터 속내용까지 알차게 업데이트 완료!

1. 주식, 파생상품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 등 2015년 新 주식거래제도 반영!
2. 국내 가입자 수 1위! 키움증권 '영웅문4' 업데이트 전면 반영!
3. 2015년 현재 시점 반영 유망주 및 가치주 선정

아무것도 몰라 불안하고 두려웠던 주식투자  
소중한 내 돈을 지키고 쓸쓸한 수익도 올리는  
주식 생초보를 위한 가장 친절한 입문서!

문의: 02-2128-8773

"주식 투자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세계로TV의  
신가치투자  
돈 번 사람들

34개월만에 14억 8천만원 벌다 - 필명: 금융강국  
수익금으로 집을 사다 - 필명: 집사자

- ◎ 2015년 국가 소비자중심 대상 수상! - 동아일보 선정!
- ◎ 서적 구매 독자를 위한 ₩ 65,000 (세계로 TV) 1일 무료 이용권
- ◎ 무료 주식 강연회

강의: 김원기 대표  
주제: 바이오 & 중국 소비주에 투자하라!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2~3시  
장소: 5, 6호선 공덕역 6번출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혜택: 무료회원 가입시 도장지갑 증정

※ 선착순 입장 / 전화예약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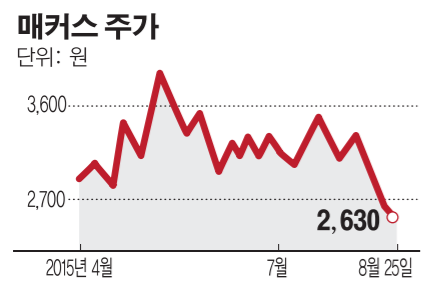
문의: 02-336-2226



김원기 지음 | 248쪽  
글로벌북스 | 값 14,000원



# 매커스 큰손 “경영참여”... 최대주주 지분취약 노리나



## 최성항 강남삼성의원 원장 지분 5.07% 사들여 “저평가된 주가 이용 수익 극대화 노력” 시작도

수년 째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매커스에 최대주주 지분이 취약한 틈을 탄 한 병원의 지분 매입과 경영참여 선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매커스 관계자는 “자사 주식을 꾸준히 매집한 것 같다”며 “대주주 지분도 적고 실적이 꾸준히 좋아서 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식 매입 이유에 대해 현재 알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일 수원 소재 최성항 강남삼성의원 병

원장 외 1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매커스 지분 5.07%(72만8042주)를 매수하고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최 원장의 지분 매입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매커스가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과 회사 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주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매커스 최대주주인 신동철 대표이사는 4.39%(70만8586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 대표의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쳐봐야 10.74%

에 불과하다. 여기에 매커스는 지난 2013년 매출 646억원, 영업이익 51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매출 636억원과 영업이익 72억원으로 이익 측면에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도 매커스는 36억48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내 전년동기대비 55.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7억2900만원으로 476.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에서 매커스는 실적 호전과 퍼스펙, 제이씨현시스템 등과 함께 드루이나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로 꼽히면서 꾸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것 같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분이 낮은 최대주

주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배당 등 주주친화 정책을 외면하고 있어 증권 관련 기사판 등에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최 원장의 주식 매입 후 경영참여 선언은 이같은 상황을 이용한 수익극대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 회사측은 물론 업계 시각이다. 또한 최근 큰 손들이 지분 매입 후 경영참여를 공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나가는 먹튀도 많아 선부른 매수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전문가는 “지분 매입 후 경영참여 공시를 낸 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며 “단기적인 이슈 보다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상반기 장사 잘한 케이사인, 하반기도 맑음

영업이익 31억... 25% 상승  
개인정보보호화 솔루션 증가  
B2B시장 위축에도 호실적



201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2016년 1월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됐다. 케이사인은 “법 제정 초기,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DB암호화솔루션을 구비하던 추세에서 이제는 민간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판매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추세”라며 “개인정보DB암호화 사업의 공공 부문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동기 대비 공급계약

수주가 계속 증가하는 등 주력사업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개인정보DB암호화 부분의 가파른 실적 성장과 더불어 그 동안 누적된 판매와 연동되는 유지보수 매출의 증가, 시스템계정관리(KAMOS) 제품의 CC인증, 선제적으로 준비한 빅데이터 관련된 로그 분석 솔루션과 PIST (개인정보뱅크) 등 신규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락 대표이사는 “주요사업의 실적 호조를 기반으로 해외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모바일 코드 난독화 제품, IoT관련 보안 솔루션, 빅데이터 등 빠르게 준비한 신규사업 기술경쟁력과 영업 인프라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오는 하반기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는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 햇택, 中 게임사 임원 이사 선임... “현지 사업 확대”

자회사 게임 ‘스포라이브’ 中 진출  
‘상해...유한공사’ 주요임원들 영입

한공사 대표이사와 전취이흥 상해영업점 문화관광유한공사 부총재, 진이 상해영업점 문화관광유한공사 에니메이션사업본부장이다. 앞서 햇택은 자회사 스포라이브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게임의 재미를 해외 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중국 현지 퍼블리싱 에이전트사인 상해영업점문화관광유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해영업점문화관광유한공사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대표주자로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모바일게임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중국내 모바일 채팅앱 모

모(MOMO), 최대 검색 서비스인 바이두(BAIDU), 샤오미(XIAOMI),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요쿠(Youku), 웹게임사인 썬쓰치오우시(37WAN) 등과 사업 제휴를 하고 있다. 햇택 관계자는 “이번 신규 이사들의 선임으로 하반기 중국 게임사업 진출에 따른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 다양한 게임들을 국내에 퍼블리싱하는 동시에 국내의 유명한 게임 콘텐츠들은 중국으로 진출시키는 등 햇택의 사업 다각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하반기 실적 자신있다” 장내주식 사들이는 나노스

3분기 삼성 겔A8 16M 모듈 공급  
매출 발생 늘어나자 주가부양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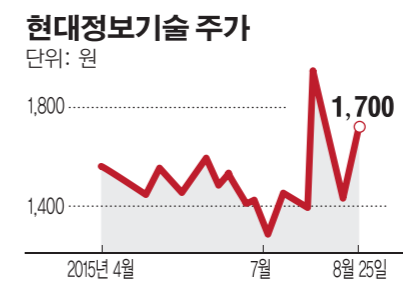


스 주가의 적정 가치 제고를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3분기부터 카메라모듈 신규모델 공급 및 자가모듈 공급, OIS Hall Sensor 사업 매출 발생에 따라 큰폭의 실적개선이 예상되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나노스의 최근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휴대폰카메라모듈 등 부품의 매출비중

이 2013년까지 50%이상이었으나, 2014년부터 광학필터 및 Hall Sensor 등의 소재 매출이 절반을 넘겨 소재부품 매출 비중이 눈부시다고 덧붙였다. 나노스 관계자는 “소재부품중 광학필터 사업부(블루필터, IR필터, 필름필터)는 블루글라스 잉곳과 웨이퍼를 증착된 필터 제조사들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진행했다”며 “국내에만 집중됐던 매출구조를 다변화해 대만에 이어 중화권시장도 추가적인 거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부터 개발한 OIS Hall Sensor사업은 올해 7월 납품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최대 OIS 모듈 제조사인 일본 및 국내사에 본격적인 납품이 임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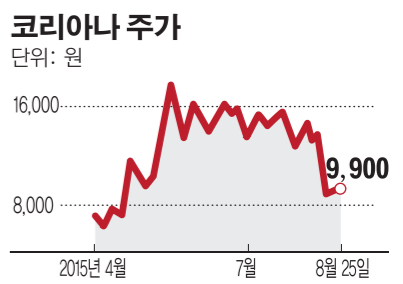
# 매출 늘고 직원 줄였는데도... 현대정보기술 상반기 적자

순손실 26억491만원 기록  
판관비 16억... 비중 높아



현대정보기술이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2분기 매출이 증가하고 정규직을 줄였음에도 여전히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정보기술은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이 722억85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0억3863만원, 당기순손실은 26억491만원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손실 규모가 커진 데는 매출 규모에 비해 판관비 비중이 커진 때문이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총이익은 6억5373만원이나 판관비는 16억원이 넘는다. 매출비가 비중은 2분기 95% 수준이었으나 상반기에는 99%로 높아졌다. 2분기 매출총이익이 22억원을 기록했으나 상반기는 6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판관비에 큰 차이가 없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판관비 내역을 자세히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급여다. 2분기 총 급여지출은 4억9726만원에서 1분기 7억823만원보다 절반 42.4% 감소했다. **황윤주 기자 hjj@**

현대정보기술은 올해 2분기 직원 수를 줄이고 임금이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월 말 기준 1400만원에서 6월 말 2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임원 보수는 22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수치 상 줄었다. 총 직원 수도 감소했다. 3월 말 기준 현대정보기술의 직원은 총 542명(정규직은 496명, 계약직 46명)에서 6월 말 485명(계약직 50명 총 535명)으로 감소했다. 2분기 정규직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치렀음에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현대정보기술은 ITO 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SI) 사업체다. 롯데정보통신이 지분 52.3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신영자 롯데삼당복지재단 이사장과 마용득 현대정보기술 대표가 각각 0.08%, 0.02%를 소유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중국서 잘나가는 코리아나  
노화방지 제품개발 정부 지원

중국 화장품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코리아나가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 화장품 관련 개발에 나섰다. 25일 코리아나화장품에 따르면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경제협력 산업육성사업’ 관련 연구 수행기금으로 선정됐다. 코리아나화장품은 ‘광노화 방지용 소재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제품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5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2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경제협력 산업육성사업은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코리아나화장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을 바탕으로 총 15개 분야 중 대안·충남 지역과 연계한 기능성 화학소재 분야에서 발탁됐다. 이번 과제는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노화 현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소재 및 제품 개발에 관한 것이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의한 피부 변화 연구를 통해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개념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 트레이스, 美 현지 법인 설립 애플 특허 침해 대응 나선다

디자이너·지문인식 지재권 공조

트레이스가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한 대응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공급 등을 위한 미국 현지법인 설립에 나섰다. 25일 트레이스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디바이스와 플랫폼 대기업들을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코밸리 내에 현지 법인인 TRAI-S-AMERICA Inc.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미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필압과 필촉의 3차원 스타일러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트레이스의 T-디지타이저를 OS와 연동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하드웨어에 탑재한 글로벌 제품으로 미주 시장을 직접 공략함과 동시에, 투명지문인식 제품의 상용화 단계부터 미국 현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특허에서 제품화까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지 법인을 통해 영업 및 특허 등 지재권(IP) 공조는 물론이고 본사를 대리해 각종 주요 계약을 체결한다고 회사측은 설

명했다. 이를 위해 트레이스는 현지 전문업체와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이후 특허 전문 로펌들을 통하여 지재권 활용을 통한 수익성 증대도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레이스 관계자는 “미국의 글로벌 부품사, 스마트기기 제조사, OS대기업, 전기자동차 기업의 4개 메이저기업으로 집중하여 제품의 공급에서 각종 시장 역할 상황에 맞는 계약 등 현지 법인이 집중 공략할 것”이라며 “본사의 자본투자가 실비규모로서, 현지법인의 실적 또한 머지않은 시점에서 달성되어 독자 성장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레이스는 애플이 자사의 디지털 지문인식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애플과의 대응이 구체화되면서 이번 미국투어에서 상당한 성과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시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아이앤씨테크, 도로공사  
LED조명 제어모뎀 수주

아이앤씨테크놀로지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LED 가로등 및 터널등 구매 사업에 공급자로 선정된 티솔루션으로부터 PLC(전력선 통신) 칩셋 기반의 LED 조명 제어 모뎀을 수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로와 터널의 조명기구를 LED 조명에 설치할 하고 있는데 조명 제어 위한 통신 기술로 PLC 기술을 채택하여 제어용 모뎀을 등기구 마다 탑재하고 있다. 아이앤씨의 LED 조명 제어 모뎀에는 자체 개발한 PLC(전력선 통신) 칩이 내장돼 있으며 LED 가로등과 터널 등 기구에 들어가 조명기구의 점소등은 물론 밝기를 조절하는 디밍 제어 등의 고장 유무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외부 밝기에 따라 조명등의 밝기를 자동 조절해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모든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자동차그룹 동행어 사전**  
 동행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 크 차

일을 하는

[ A great car ]

▣ 크기에 상관 없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차

몸집은 작아도 하는 일 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차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자동차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차량 보급, 이동 보조기기 지원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앞장서는 현대자동차그룹 }



사회적기업 (주)이지무브  
 (주)이지무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010년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보조기기를 국내 최초로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 동행으로 미래를 펼치다

**HYUNDAI**  
 MOTOR GROUP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철강, 건설을 중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동행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